

기마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기마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기마도

한국평협

2002
제38호

도덕성 회복
기마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기마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기마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기마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기마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 평협 제38호 · 2002년 1월

발행일 2002년 1월 25일

발행인 여 규 태

편 집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홍보분과위원회

발행처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10호

☎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E-mail:clak@catholic.or.kr

한국평협

2002
·
제38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 명협 2002

- 4 인사말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 여규태
- 9 화보 사진으로 보는 한국 평협 2001년 • 편집부

똑바로 운동

- 33 '똑바로' 라는 용어에 대하여
- 34 똑바로 운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38 도덕성 회복 실천 선언문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 40 똑바로 운동 각 교구에서 대대적으로 전개 • 미승렬
- 42 2001년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 똑바로 운동에 다함께 나섭시다
- 44 도덕성의 기초와 상실, 회복 • 최창무
- 49 도덕성 회복 운동과 평신도 사도직 • 이규정
- 58 도덕성 회복 운동의 신학적 소고 • 광승룡

- 62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신앙대회
- 64 가톨릭 대상 시상 세상의 빛과 소금을 찾아
- 66 2001 민족 공동 행사에 다녀와서 • 최홍준
- 69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알고 계십니까?
- 70 국제 가톨릭 평신도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기 • 한홍순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

- 75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준비와 과정 • 최홍준
- 80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의미와 성과 • 한홍순
- 82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 최종 성명
- 86 평신도대회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메시지



- 89 2002년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 99 올해의 평신도 정약종의 교회 활동과 신앙 • 차기진

2002년 교구장 사목교서

- 110 서울대교구 시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 정진석
- 112 대전교구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의 해 • 경갑룡
- 114 인천교구 새복음화, 재복음화, 사회복음화 • 나길모
- 116 수원교구 교구 시노두스(대의원회의) 폐막에 부쳐 • 최덕기
- 118 원주교구 복된 가정의 해 • 김지석
- 120 대구대교구 분야별 교구 대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 이문희
- 122 부산교구 복음화 실천을 통한 공동체 성장의 해 • 정명조
- 124 청주교구 성부의 뜻에 이바지하는 가정 • 장봉훈
- 126 마산교구 청소년 선교의 해 • 박정일
- 128 광주대교구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 최창무
- 130 전주교구 어둠에 빛을 • 이병호
- 132 제주교구 신앙 쇄신으로 교구의 모습을 새롭게 • 김창렬
- 134 군중교구 병사들을 위한 사목에 심혈을 • 이기현

- 136 한국 천주교 형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 명단
- 138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명단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신사년의 2001년이 벌써 저물고 임오년의 새해가 밝은 지도 꽤 지났습니다. 이 한 해에도 전국의 모든 주교님들을 비롯하여,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평협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떠올려봅니다. 마치 구름에 달 가듯이 뇌리를 스치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도덕성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 사회의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벌이고 있는 ‘똑바로’ 운동은 지난해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주교님들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기꺼이 허락하신 뒤로 각 교구별로 활화산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똑바로 운동이란 거창한 구호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평협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특히 평협이 신뢰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1989년부터 2년 동안 펼쳐 비단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내 탓이오’ 운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똑바로 운동’은 그때의 ‘내 탓이오’ 운동의 맥을 이으면서도 실천의 의지를 더욱 다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자는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똑바로 운동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한 가지부터라도 똑바로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족끼리, 친구끼리, 직장 동료끼리, 본당 단체별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 2, 7)이라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이 똑바로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평협 차원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에 있는 힘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틈틈이 '평신도는 누구이며 평신도 사도직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는 가운데 자신의 신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신도와 그 사도직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취급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에서 "평신도는 성품에 속하는 이들과 교회에서 인가된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 외의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라며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신도의 신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평신도 스스로 거듭 인식하는 데서 사도직 활동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난해 3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에 평협 임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는데 다른 나라들과 체험을 나눔으로써 평신도의 신원을 자각케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히 평신도 여러분이 공의 문헌을 다시 손에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공의회는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사명에 더욱 헌신하고 열중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을 열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우리 평신도들은 이 새 천년기에 더욱 새로운 열정과 노력으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주어진 고유한 소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번에 펴내는 「한국 평협」제38호에는 지난해에 연구하고 발표하였던 도덕성 회복 운동(똑바로 운동) 관련 내용들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버리고 싶지 않아 다시 모았습니다. 또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 내용들, 각 교구 교구장 주교님들의 2002년도 사목교서도 함께 묶었습니다.

똑바로 운동

· 똑바로 운동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 전국적으로 펼치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다.
· '나'부터 똑바로 살아가야 하지만
· 나아가 '우리'가 똑바로 하자는 운동이다.
·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똑바로 하자는 취지에서
· 이러한 도덕성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 평협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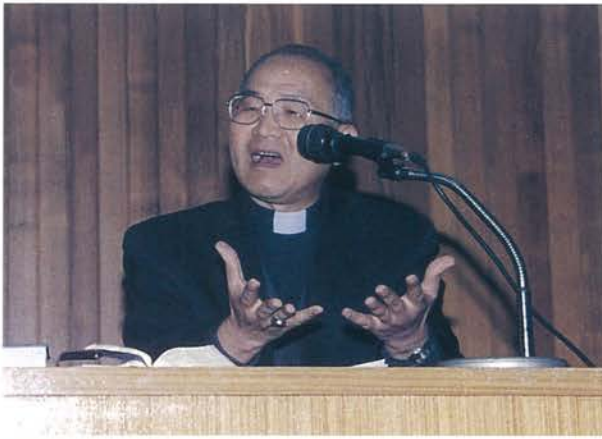


2001년(제34회)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2001년 2월 17일(토)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내용 : 2000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 승인, 200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참석자 : 49명(13개 교구 평협 대표 39명, 25개 단체의 대표 10명)



내용 : 도덕성 회복운동 표어 공모 결과 보고(당선작은 없고 가작 2편)와 재공모 추진
참석자 : 44명(14개 교구 평협 대표와 단체 대표)



제1차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2001년 4월 28일(토)-29일(일) 전주교구 천호 피정의 집

기타 :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다”라는 주제의 강의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김진소 신부의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강의



주제 :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11)

주관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민족 화해 토론회

2001년 5월 30일(수)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 대강당

- 기조 강의 : 한정관 신부(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제1주제 발표 : 이석우(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특별위원)
제2주제 발표 : 이능규(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특별위원)



내용 : 도덕성 회복운동 실천 방안, 도덕성 회복운동 캐치 프레이즈 확정(똑바로)
참석자 : 55명(14개 교구 평협 대표와 단체 대표)

평협 임원들이 회의 기간 중 광주 5·18 민주화 공원을 찾았다.



제2차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세미나
2001년 7월 7일(토)-8일(일) 광주대교구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환 2001-2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 회의
일시: 2001년 7월 7일(토)-8일(일) 장소: 광주대교구 명상의 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기조 강의 :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주교

제1주제 : 도덕성 회복

주제 발표 : 이종희 신부(광주 가톨릭 대학교 교수)

논평 : 조종현(광주대교구 평협 홍보분과위원장)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한 세미나

제2주제 : 도덕성 회복 운동과 평신도 사도직

주제 발표 : 이규정(전 부산교구 평협 회장)

논평 : 마정웅(대구대교구 평협 회장)



똑바로 운동 선포식

한국 평협은 2001년 9월 8일 서울대교구 평협 차원에서 똑바로 운동 선포식과 차량 스티커 부착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계몽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똑바로 운동이 10월 15-18일의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차원의 운동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이후로는 각 교구별로 선포식 등을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제3차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2001년 10월 27일(토)-28일(일) 대전교구 평신도 교육원(정하상 교육회관)

내용 : 2002년도 사업계획, 도덕성 회복운동 '똑바로' 운동의 추진 방안
참석자 : 12개 교구 평협 대표와 단체 대표



주제 강의 : 곽승룡 신부(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주제 : 도덕성 회복운동과 그리스도론적 의미



기타 : 대전 가톨릭 대학교 방문(유홍식 학장신부의 안내)
성지 순례(공주 황새바위)



2001년은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의 뜻깊은 해였다.

이에 따라 각 교구에서는

한 해 동안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되새기며 신자들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고
순교 선열들의 고통과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다짐하였다.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신앙대회

이러한 다짐은 특히 9월 순교자 성월에
각 교구별로 열린 순교자 현양대회를 통해 그 절정에 달했다.
그 가운데 9월 16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대교구의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대회의 모습을 다시 본다(본지 62-63면 참조).







2001년도 가톨릭 대상 시상

2001년 12월 22일(토)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수상자 : 사랑 부문-정옥기 안드레아

문화 부문-신치구 베르나르도(본지 64-65면 참조)



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교 감사 미사

그 동안 주교회의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협을 지도해 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김옥균 바오로 주교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등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직무에서 퇴임하는 감사 미사가 2001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에 봉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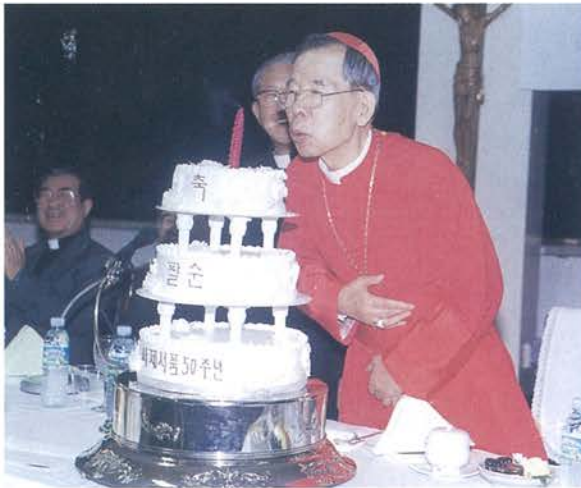
교회법에 따라 김옥균 주교가 이미 제출한 만 75세 정년 퇴임 신청을 교황 성하게서 수리하셨던 것이다.



1998년 4월 3일로 서울대교구장직을 물러나면서 사목 일선에서 퇴임하였지만 신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사제 수품 50주년 및 팔순을 기념하는 미사와 축하연이 2001년 9월 14일 명동성당과 가톨릭회관에서 있었다.

평협은 이날 축하연은 물론 영명 축일과 새해 벽두 등 여러 차례 김 추기경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추기경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똑바로’라는 용어에 대하여

● 사전적인 의미

- 바른, 곧은(直, straight forward)
- 올바른, 의로운(義, upright, righteous)
- 정직하게(眞, honest)

● 용어의 풀이

·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길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

· 성서에서도 “너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먼저 하느님 나라의 의로움을 구하여라.”고 가르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뒤바뀌고 윤리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 복지 사회에 이르지 못한다.

● 용어의 적용

‘똑바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어디에나 적용할 있다.

양심을 똑바로, 마음(생각)을 똑바로, 말을 똑바로, 행동을 똑바로, 운전을 똑바로, 칭찬을 똑바로, 비판을 똑바로, 기도를 똑바로, 정치를 똑바로, 선거를 똑바로, 경제를 똑바로, 교육을 똑바로, 운동을 똑바로,

● ‘내 탓이오’ 운동과의 연계성

한국 평협은 1983년부터 신뢰 회복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일환으로 1989년부터 2년 동안 ‘내 탓이오’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집단간의 불신의 골을 메우고 자 우리 자신부터 반성하자는 성찰의 뜻이 강했다. ‘똑바로’ 운동은 ‘내 탓이오’ 운동의 맥을 이으면서도, 실천의 의지를 더욱 다지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실천 운동을 지향한다.

똑바로 운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똑바로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똑바로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똑바로 운동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펼치는 도덕성 회복 운동입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가정이나 이웃 간에서의 예의범절을 비롯해 공중도덕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똑바로 하자는 취지에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바로 운동입니까?

‘똑바로’라는 말은 1) 바르다, 곧다(直) 2) 올바르다, 의롭다(義) 3) 정직하고 신실하다(信)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바르고 곧게 서 있지 못하고, 올바르고 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정과 우리 사회를 똑바로 세워나가고자 ‘똑바로’라는 표어를 내건 것입니다.

똑바로 운동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첫째, 양심 성찰 운동입니다. 우리 자신이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의식 개혁 운동입니다. 별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 생각하고 생활했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셋째,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생각이나 말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공동체 운동입니다. 나부터 시작하지만 이웃과 함께하고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똑바로 운동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똑바로, 생각을 똑바로, 말을 똑바로, 기도를 똑바로, 운전을 똑바로, 칭찬을 똑바로, 비판을 똑바로, 교육을 똑바로, 정치를 똑바로, 경제를 똑바로... 이렇게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반성해 보고 '똑바로'가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먼저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운동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똑바로 운동은 특정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선의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은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바르지 못했던 생각을 바로 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여 우리 사회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합시다.

똑바로 운동에 이렇게 참여합시다

똑바로 운동은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똑바로’라는 말은 ‘하라’는 말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운동은 남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기에 앞서 나부터 똑바로 하는 운동입니다. 남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실천할 때 똑바로 운동은 힘있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과 공동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킵시다.

똑바로 운동은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나만 똑바로 하면 그만”인 운동이 아닙니다. 나부터 똑바로 하지만 우리가 함께 똑바로 하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래야만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은 생각을 똑바로 하는 데서 시작해 행동을 똑바로 하는 데로 이어집니다.

똑바로 운동은 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똑바로 운동은 성찰 운동이자 의식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나 똑바로 운동은 반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성한 내용을 지금 즉시 실천에 옮기는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똑바로 운동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똑바로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조금만 의식하고 노력하면 쉽게 똑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습관에 젖어, 단지 귀찮아서 똑바로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실천합니다.

똑바로 운동은 일회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화합시다.

똑바로 운동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이 바른 생각, 바른 습관, 바른 행동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한 가지 실천사항을 정해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하다면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바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체 행사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하나씩 정해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운동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또는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자체 행사를 갖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의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적당한 날에 가족(모임) 구성원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 ② 간단한 기도(성가)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 ③ 가장(대표)은 똑바로 운동의 취지를 설명해 줍니다.
- ④ 가정(모임) 공동체가 똑바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각자가 또는 가족 전체가 실천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 ⑤ 각자가 실천 사항을 서로 나누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한 후 기도로 마칩니다.
- ⑥ 똑바로 스티커를 차량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 ⑦ 다음 모임 때는 그 동안 똑바로 하기로 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서로 나누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실천사항을 정해 나갑니다.

똑바로 운동의 체험은 서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바로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은 서로 체험을 나누고 격려하도록 합시다. 똑바로 운동의 체험을 나눌수록 기쁨과 보람이 커지고 힘도 솟아날 것입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체험 사례나 수기 발굴 등을 통해 똑바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의와 평화가 넘실거리고 사랑이 꽃피는 사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새 천년기와 21세기의 원년을 지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은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고 정치인들의 파당적인 정쟁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적 집단적 이기주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는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을 탄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아도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금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낙태와 살인, 자살 같은 반생명적 현상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은 국토를 황폐화시켜 마실 물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양심과 도덕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 일그러진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바로잡아야 할 소명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똑바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바로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는 의식 계몽운동이자 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제힘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존중받으며, 약한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저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는' 결연한 자세로 '똑바로' 운동을 시

작하면서 이 땅의 4백만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나아가 뜻을 함께하는 선의의 모든 국민도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모아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도록 '똑바로 운동'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을 밝힙니다.

-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올바르고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동선을 앞세우면서 생각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 우리는 말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바르고 진실한 말, 책임있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즐겨 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지적하면서도, 비난이나 험담은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행동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행동,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2001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각 교구 '똑바로 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 마 승 렬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홍보분과위원회 위원

한 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도덕성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똑바로 운동'이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 교구로 똑바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평협은 지난 9월 8일 서울대교구 평협 차원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똑바로 운동 선포식과 차량 스티커 부착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국민 계몽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어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0월 27-28일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똑바로 운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본당 평협 회장과 교구 신심·활동 단체장 100여 명은 똑바로 운동 실천 선언문을 파견 미사에서 낭독하고 본당이나 단체에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1월 3일 제주시 삼도1동 가톨릭 회관 강당에서 교구장 김창렬 주교를 비롯해 평협 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똑바로 운동 취지와 경과 보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선언문 낭독, 차량 스티커 부착 행사 등으로 이어졌다. 제주교구 평협은 선포식과 함께 각 본당으로 똑바로 운동 포스터와 스티커 등을 각 본당으로 배포하고 본당별로 선포식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11월 18일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는 인천과 원주 교구에서도 똑바로 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1월 18일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똑바로 운동 선포식을 갖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무너



진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미사 후 대시민 홍보 일환으로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도 이날 원주시 봉산동 천사들의 집에서 교구 사제단과 평협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딱바로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선언문 낭독, 스티커 부착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도 12월 2일 안동 가톨릭 회관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 평협이 도덕성 회복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딱바로 운동을 교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안동교구 평협은 이날 각 분당 회장과 교구 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딱바로 운동 선포식을 갖고, 2002년도 평협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딱바로 운동에 초점을 맞춰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002년에도 딱바로 운동을 주력사업으로 펼쳐나갈 계획인 한국 평협은 지난해 10월 27-28일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펼쳐진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전국 차원으로 이 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이 운동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평협은 특히 양심과 도덕이 설자리를 잃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나라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 운동에, 이 땅의 400만 평신도들이 적극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더 나은 세상,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똑바로 운동에 다함께 나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연중 제33주일인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제34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1968년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평신도의 날을 지내기로 한 이후 해마다 연중 마지막 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바로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평신도 주일을 정해 지내고 있는 것은 세속 안에서 현세 사물을 비추며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평신도들이 시대에 요청되는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시대에 요청되는 평신도 사도직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 실천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운동은 오늘의 사회에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양심과 도덕이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어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자는 의식 계몽 운동이자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시작한 똑바로 운동은 주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이제 전국 각 교구와 본당으로 일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이 단지 연례행사 치레로 하는 일회적인 구호성 운동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응하기 위한 '시대의 요청'이자 우리 '그리스도인 양심의 호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똑바로 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결연히 다짐하는 날로 지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똑바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들은 독서와 복음 말씀은 똑바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독서의 말씀처럼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제2독서의 말씀처럼 게으름을 부리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일해서 제힘으로 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류에 영합하여 잇속을 차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옹고고 떳떳하고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바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 잇속도 차리지 못한 채 바보처럼 산다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고, 혼자 올바른 척, 정직한 척하지 말라는 조소나 질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이런 유혹이 머리를 치켜들고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느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말없이 제힘으로 성실히 벌어들여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때에는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승리의 태양이 비취와 우리의 병을 고쳐” 똑바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평신도 주일을 맞아 똑바로 운동에 결연히 나서려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새삼 위안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에 힘차게 나섭시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 함께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 전체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로 변화시켜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01년 11월 18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의 기초와 상실, 회복

최 창 무 안드레아 대주교 ● 광주대교구 교구장

도덕성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에 준한 행위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바로고 참된 삶을 지향하는 인간의 공통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덕성의 회복을 외치는 데는 도덕성의 부재(不在) 내지 그 저하(低下)를 전제할 때에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 요즘 세태를 흔히 “도덕성의 부재”, “총체적 부패”, “구조적 불의와 부패”가 만연하여, “도덕의 불감증”, “윤리적 냉소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이는 곧 비인간화, 인간성의 상실, 도덕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도덕성 회복 운동은 인간화,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볼 수 있고 마땅히 있어야 할 운동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주제를 도덕성의 기초와 상실, 그리고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간단히 논해보고자 한다.

도덕성의 기초

우리가 도덕성을 이야기하려면 도덕성의 주체가 되는 인간 이해를 먼저 논하고, 이해된 인간성의 기초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나 도덕적 행위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 순서이다.

가) 윤리 도덕의 주체인 인간 이해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따라 도덕성은 다양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류 역사나 문화 안에서 인간의 이해에 따라 그 도덕성이나 도덕률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나라 역사만 보아도 불교가 지배 사상이고 문화였던 고려 사회와, 유교가 지배적 사상이요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두었던 조선조(朝鮮朝)와 천

주교의 전래로 100여 년 간의 박해시대에 있었던 도덕논쟁을 살펴보면 인간 이해가 도덕성 확립과 수호 및 회복운동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고 그 안에 불변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을 지(知), 정(情), 의(意)의 능력을 갖춘 존재이며, 이 기본 능력을 통합하는 양지양능(良知良能)을 지닌 존재로서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는 존재임을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이해를 전제하고 나서 도덕성을 논할 수 있다.



나) 도덕률

인간이 참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목표를 정해주고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통 도덕률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척도를 말한다. 거기에는 보통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주관적 기준을 양심이라 하고 객관적 기준을 법이라고 한다. 법에는 자연 품성에 들어있다는 자연법이 있고, 인간이 합의하여 정하는 법이 있다(넓게는 관습법과 헌법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정의와 공동선, 보조성의 원리 등의 가치를 수호하는 입법들을 말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주관과 객관의 상호 조화와 보완 관계가 있어 하나의 양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즉 도덕성의 기초는 양심에 있고 양심은 객관적 법에 의하여 인식되고 양육된다고 해야 하겠다. 성숙한 양심은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의 경직성을 극복해 주며, 법은 어린 양심, 비뚤어진 양심을 바로잡아 주고 키워준다.

다) 도덕성의 성립

도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늘 고려되어야 한다. 곧 인간적 행위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도와 지향을 밝혀야 한다.

첫째,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유 의지로 행동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런 것의 결함이 있을 때에는 바르고 참된 도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장애요인들의 영향).

둘째,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와 결과를 낳게 되고 윤리적 평가도 차이가 있게 된다. 소위 육하원칙(六何原則)의 적용으로 행위는 평가받게 된다.

셋째, 행동하는 사람의 지향에 따라서 옳은 일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고, 같은 행위라도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도덕성의 상실

위에서 도덕성의 기초를 논했으므로 그 기초의 요소에 따라 도덕성의 상실도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고 도덕성 회복의 방법도 논의할 수 있겠다.

가) 도덕성의 주체인 인간 이해의 결함은 곧 도덕성 부재나 상실을 의미한다. 황금 만능주의와 향락주의가 사회에 만연하면 인간의 위상이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윤리 도덕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냉소주의의 대상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의 주체인 인간 이해와 인생의 목적이 확립될 때, 가치 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질서가 확립되면 인본주의의 문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 생활환경의 바른 질서는 인간적 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나 환경이 열악하면 사회구성원인 개인은 무기력하게 되고 도덕성의 상실은 자명한 일이다. 이른바 총체적 부패나 구조악이니 하는 것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악이 선을 지배하고 부정이 정의를 억압하는 현상이 드러난다. 이 때에는 불행하게도 정의와 진리가 수난(受難)받게 되고 그 희생 안에서 도덕성은 회복된다.

다) 윤리의 주체인 인간 개개인이 바른 양심과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루는 사회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개개인은 도덕군자로 그릇된 사회를 비판하지만 그릇된 사회,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는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음하게 된다. 그래서 현 교황님은 회칙 「사회적 관심」(36항)에서 '구조악'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악의 구

조'에 유의하도록 당부하신다. 즉 악의 구조에서 구조악이 발생하느니만큼 악의 구조에 들어있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과 이기심을 극복하라고 하신다. 도덕성의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극복하신 세 가지 유혹을 인간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도덕성의 회복

도덕성의 회복이 요청되는 것은 우리가 참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며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성 회복은 인간성 회복부터 해야 할 것이며 인간성 회복은 바른 인간 이해의 토대 위에 마련되어야 한다.

가) 인간 존재의 세 가지 차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물(微物)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 곧 영물(靈物)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나약하고 한계성에 갇힌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 능력을 갖추어 자연을 초월하고 지배하며 이용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자연적 죽음을 극복하려 노력하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며 문화적 삶을 영위한다. 이 모든 특성이 개발되고 발전되며 욕구가 충족될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 곧 육체의 생육이나 쾌락만이 아니고 지적, 영적 충족도 갈구하는 존재일 때 그 존재의 가치와 풍요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도덕성 회복도 위의 3차원적 방향의 노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 안에서 생성, 성장, 성숙됨을 인정하고 이 과정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의 발달, 환경 친화적인 노력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고취가 요구된다.

둘째, 인간의 특성은 자아의식과 자유 의지의 소유와 계발 육성을 통한 성숙이 요청되고 이에 대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데서 인간화는 가능하다. 인간의 자유와 합리적 사고, 공동선의 추구하고 상부상조, 보조성의 원리 터득과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경외심이 움트고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종교심, 천명(天命)을 받들어 순천(順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인간 사회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얻게 된다.

나) 사회의 인간화

인류 사회는 씨족 사회, 부족 사회, 국가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개인의 출생이 부모에게서, 가정은 가문에서, 가문은 부족에서, 부족은 나라에서, 나라는 국제연합에서 힘을 얻고 지지를 받으나 반대로 제한을 받고 억압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자유와 품위가 인정되고 보호되는 남녀의 결합에서 새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연대하여 좋은 이웃이 되고, 나라와 나라가 연대하여 국제사회를 이룬다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개인들은 성숙한 가정의 일원이고 시민이며 국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유지되고 보호된다면 도덕성이 전수되고 유지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때 도덕성은 회복된다.

다) 인간 구원과 사회 구원

도덕성 회복은 결국 한 개인의 성숙과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늘 요원한 목표이고 지향으로만 남아있다. 세계의 종교들은 인간의 완성인 구원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평행선을 느끼게 한다. 종교학적으로는 자력구원(自力救援)과 타력구원(他力救援)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구속의 길과 완세(完世)의 목표를 말한다. 이는 곧 신앙고백이며 인류의 희망이고 구원의 동참이며 도덕성 회복의 지름길 이 된다. 이는 삼중 관계, 곧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모습은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회년에 우리가 고백한 “나부터 새롭게”, “참 가정 이루기”, “좋은 이웃 되어주기”, “함께 가요, 우리”일 것이다.

(이 글은 2001년 7월 7-8일 광주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개최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 직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함께 열린 '도덕성 회복'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이다.)

도덕성 회복 운동과 평신도 사도직

이규정 스테파노 ● 전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머리말

지금 우리 사회를 두고 사람들은 총체적 위기의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경제·교육·문화·국방 등 모든 면에서 잡음 없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분야마다 붕괴 직전의 불안감을 자아내게 한다. 또 분야끼리 혹은 분야 자체 내의 상극과 갈등 현상이 이미 정상을 넘어 어떤 위기감을 안겨준 지 오래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막무가내로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인이 취할 태도인지 자문해 보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살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위기를 감지하지도 못한다면 그는 건전한 양식을 지닌 시민이라기보다는 하루살이식 현실 안주주의자이거나, 체면도 염치도 망각한 채 오로지 자기 잇속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최소한도의 역사의식이나 미래지향적 신념을 지니고 사는 사람, 최소한도의 양심이나 염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이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지도층이 지금 도덕성을 상실한 채 혼탁한 세파의 격한 타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덕성 회복이란 주제의 세미나는 시의 적절한 일로 평가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평소의 생각, 즉 도덕성이 실종·붕괴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펼쳐보고자 한다.

도덕성 실종의 원인

우리 도덕성 실종의 원인은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 수립 후 친일 반역자의 처단을 외면했다. 반민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반민특위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도 못하고 정권 압력에 의해 해체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승만 정권은 반민 특위에 의해 재판 중이던 친일 반역자들마저 풀어놓게 하는 우를 범했다. 당시 정권은 친일 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했으면 그들로 하여금 옳드려 근신이라도 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많은 친일 인사를 정부 요직은 물론 교육계, 경찰계, 관계에 고루 중용함으로써 도덕성 세우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이다. 이는 두고 두고 민족 정기의 맥을 끊으면서 우리 도덕성의 원천과 자존심을 흠집 내기에 족했다. 그리고 그 오욕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부끄러운 미궁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몸의 척추가 비뚤어지면 온갖 병이 생기듯, 한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온갖 병폐가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정권이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매사에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믿어야 할 구석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든 역대 정부 당국이 우리 사회의 신뢰성 상실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것이 도덕성 붕괴의 중요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마당에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우리의 자본주의는 장구한 역사가 있는 서구의 그것과는 달랐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지켜야 할 본연의 윤리인 선의의 경쟁이나 질서, 상도덕의 문제는 도외시된 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게다가 역대 정권마다 자본가와 유착되지 않은 정권이 없었고, 정권과 자본가의 야합은 한국 재벌들의 이면사가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어느 사이 온 국민의 뇌리에는 물질적 가치만 자리잡게 되었다. 부의 축재까지는 안되어도 내 손에 돈 없으면 당장 사람 대접 못 받고 죽기까지 한다는 철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돈을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상하고,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편이 아내를 살상하는 끔직한 일이 생기게 된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돈, 물질적 풍요만 선호한 결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나아가서는 퇴폐적 쾌락의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의 가치관이 종래의 정신적 가치 우위에서 물질적 가치 내지 육체적 가치 본위로 전도되기에 이르렀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퇴폐적 향락,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살 빼기의 광적 풍조와, 그것이 빛고 있는 사회적 물의가 모두 이런 것을 대변하고 있다.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사람은 정신 즉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며, 세상 만사도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조화로 발전해 가는 법이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혼과 정신의 순수함, 그 아름다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금전의 위력과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있다.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리에 금전, 즉 물신과 쾌락을 보장해 주는 성(섹스)신이 대신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건 사람의 영적·정신적 가치가 거세된 채 물질적·육체적 가치만 중시된 사회와 그 사람들은 천박성을 면치 못했고, 급속히 몰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성급하게 살면서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 윤리와 도덕, 예절과 풍습이 하루가 다르게 폐기·실종되고 있다. 우리의 언어와 문자마저도 영어에 짓눌려 맥을 못 쓰고 있다. 신문·잡지·방송에 오르내리는 그 많은 영어계의 외래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국어보다 영어를 중시하고 있는 일, 제주도의 공용어를 영어로 하자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듣고 있으면 이 나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쏭달쏭해진다. 이 모든 것이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이다.

필자는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세계화 정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하고, 제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민족

의 자존심을 깃밟는 세계화 정책이 바로 국민들의 도덕 의식을 추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세계화가 성공된 다음을 상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때 우리 민족은 핏기만 한국인이지, 우리 고유 문화와 고유 언어와 문자가 외국 것에 뒤섞여 죽도 밥도 아닌 정체성 상실의 불행한 민족으로 전락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기성세대가 후손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 이대로의 세계화가 성공하고 나서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란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민족적 대재앙 앞에 도덕성 회복이란 말이 당하거나 하겠는가.

요컨대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하여 신뢰성을 상실한 점,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 본위로 전도되어 있는 점이 도덕성이 타락하고 실종된 원인이 된 것이다.

도덕성 회복의 선결 과제

도덕성 회복 운동은 바로 지금의 역사, 앞으로의 역사를 바로 세워가면서 펼치는 신뢰성 회복 운동과 가치관 바로 세우기 운동과 다르지 않다. 아니, 신뢰성 회복과 가치관 바로 세우기는 도덕성 회복의 선결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 실추의 비극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신뢰성 구축과 가치관 전도의 현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일부 정치 지도층 인사들이 태평성대의 백일몽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고통과 소망을 외면한 채 날만 새면 골프나 즐기는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가 상존하는 한 도덕성 회복을 정치 지도층에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노릇이다.

지금 한국은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가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발뺌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른바 몸통은 그냥 둔 채 깃털만 처벌된다. 따라서 그 깃털은 하필 자신만이 채수 없이 걸렸음을 투덜거린다. 서로 물리고 얹혀 있어 벌을 주면 줄수록 사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도덕성이라는 게 무너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 실추의 비극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신뢰성 구축과 가치관 전도의 현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일부 정치 지도층 인사들이
태평성대의 백일몽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서서히 종교 이야기를 해보자. 도덕성 회복을 가톨릭 정신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하느님의 뜻과 정의에 맞게 정화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 종교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믿음에서 지탱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무장하여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그리스도 정신으로 완전 무장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흔히 사변적(思辨的)이란 말을 자주 쓰지만 이 말은, 지식인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잘하나 행동 즉 실천에는 몸을 사리는 것을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도덕성 회복이란 대명제 앞에서 지식인들이 언제까지나 사변적 자세만 취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교회 안의 신앙인 지식인이 도덕성 회복 운동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위정자의 시행착오, 무소신, 지도 계층의 허물만을 탓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즉 위로부터의 시정과 개혁을 꾸준히 촉구하되 이제 아래로부터의 조용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오랜 기간 위로부터의 개혁만 갈망하면서 교회 안에 간혀 살았음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여태 세상과 등을 진 채 창백한 모습으로 교회란 밀실에 간혀 있었던 기도생활을 청산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되 그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와 행동해야 함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집안일을 못 고치면서 어찌 바깥일에 손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도덕성 회복은 신앙인들이 먼저 각성하여 하느님의 뜻과 정의,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대화회적 발언과 실천에 앞장서야 가능한 것이

다. 그것도 평신도의 변화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각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의 현주소와 각성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극단적인 물질화 풍조, 돈과 상품, 자본만이 최고의 가치요, 이것이 하느님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돈과 상품, 자본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 이제 우리 신앙인은 과감하게 이런 풍조와 맞서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권위에 이런 고약한 풍조가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성 회복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이런 맹랑한 풍조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서구 교회의 몰락을 그대로 되풀이할 것이다.

지난 군사정권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상한 목시적 억압이 있었다. 즉 신앙인은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활동만 해야지 그 어떤 사회활동 내지 현실 참여적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목시적 억압의 이면에는 우리 종교계의 지도 계층이 불의한 권력자와 유착한 나머지 종교마저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자 한 결과였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신앙인이 사회의 그 어떤 일에도 눈을 감고 순수한 신앙활동, 즉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생활이란 인간 사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신앙이 실생활과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종교일 수 없다. 생활 자체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하루하루 정화해 가야 한다.

이때 정화의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 오로지 하느님의 법과 정의이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의 정의와 법에 어긋나는 사회적 관습이나 법에 대하여 과감히 저항하고 투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현실 참여요 발언이다. 도덕성 회복 운동은 현실 참여 활동이다.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사회적 책임에 둔감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 전체 신앙인들이 권력 앞에 너무 약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온 까닭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 부자보다는 빈자 편에, 놓여져 있는 자유인보다 구속받고 핍박받는 소외 계층 쪽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사랑을 쏟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의 세상의 모순과 비리에 대해서는 목청을 돋구어 질타하시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셨다. 필자가 보건대,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현실 안주자 내지 현실 도피자가 아닌 철저한 현실 참여자 내지 현실 개혁자였다. 다만 그 표정과 말씀이 부드럽고 완곡하고 비유적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신앙인들, 특히 일부 평신도 지도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개혁 정신, 예수님의 현실 참여 정신을 망각한 채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 예수님의 끈기와 인내, 이런 것들만 부각시키면서 신앙인들의 현실 참여적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참 신자로서의 영성을 닦고 신심을 쇄신하고, 해당 교구 교구장님의 사목 방침, 소속 본당 주임신부님의 사목방침에 협조하기보다는 끼리끼리 만나 교회 안의 신귀족층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신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일쑤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이런 부류의 신자들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그들의 소리에만 귀기울임으로써 다른 신자들과는 거리를 두기 쉽다는 점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이고, 이를 혁파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이룩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다.

도덕성 회복 운동에서의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

우리 신앙인들이 애초에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복음화이다. 그러나 그 복음화의 목적은 가톨릭의 맹목적인 교세 확장이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복음화를 통하여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세상의 정화에 있다.

앞에서 밝혔지만 도덕성 회복 운동은 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 가톨릭 정신에 의한 사람들의 변화이다. 새 신자의 인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세상의 정화, 하느님의 정

의와 진리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화가 아니다. 이런 인식과 깨달음이 없이 그냥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닌 단순한 세력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보다는 유유상종으로 모인 세력 집단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가 정화되지 않고 이대로 일류 국가, 선진국이 되어버리면 그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온통 먹자판의 무슨 가든으로 뒤덮이고, 경치 좋은 방방곡곡이 모두 환락과 불륜의 현장인 러브호텔만 즐비한데 그런 선진국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와서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건설하자는 말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웬만큼은 바르고 깨끗해야 하는데, 그런 구석이 나라 안에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지 않은가. 구약성서에서 타락한 인간 군상을 징벌하신 여러 군대의 기록을 믿지 않으면 몰라도, 이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보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징벌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화되지 않는다. 방금 말한 신앙인의 범주에는 성직자와 수도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평신도는 깨어있는 의식으로써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평신도는 사회 정화의 주체적 존재,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평신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비율은 4%뿐이라고 한다. 이 4%의 소금이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전체 바닷물을 정화하여 살린다고 한다. 우리 가톨릭 신앙인만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만으로도 정화되고 살릴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겠다. 바닷물 속 4%의 이 어려운 소금처럼 우리도 사회 전체를 살려야겠다는 각오로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하느님의 증거자로 거듭거듭 태어나야 한다.

맺음말

우리에게 신앙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답게 사는

우리 신앙인은 건전한 양식의 시민,
 깨어있는 의식의 신앙인으로서 국가 정책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도덕성 회복, 사회의 의식 개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의 건전한 현실 참여로써
 아래로부터의 조용한 개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도덕성의 타락이다. 세상 사람들이야 도덕성이 타락되는 말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든 말든, 그런 일은 나와는 관계 없다거나 다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때부터 신앙인은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의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도덕성 회복 운동은 민족의 사활을 결정짓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민족이 다시 세계사에서 우뚝 서느냐, 도덕성도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도 팽개친 비참한 민족으로 몰락하느냐가 결정되는 시점에 서 있다.

사실 우리의 현대사는 부끄러운 역사의 연속이었고, 그것은 밝혀진 것보다 감추어진 것이 더 많았다.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식을 암암리에 불어넣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또 물질 만능, 황금 제일주의의 사상이 팽배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일어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게 되었다. 지금도 국가 정책인 세계화 바람은 민족 정기의 상실, 도덕성 실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신앙인은 건전한 양식의 시민, 깨어있는 의식의 신앙인으로서 국가 정책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도덕성 회복, 사회의 의식 개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제 이런 일을 국가 권력에 기대어서는 안되고, 우리들의 건전한 현실 참여로써 아래로부터의 조용한 개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 글은 지난 2001년 7월 7-8일 광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한국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함께 열린 '도덕성 회복' 세미나의 주제 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도덕성 회복 운동의 신학적 소고

곽 승 룡 비오 신부 ●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여는 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0월 27-28일 대전교구 평신도 교육의 요람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도덕성 신뢰회복 운동(똑바로, 이하 '똑바로 운동')의 시작을 선포하고 전국 차원의 평신도의 시대적 운동의 닳을 올렸다. 필자는 이 운동이 단순한 사회적 인 도덕성 회복 운동을 넘어서서 교회를 아우르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적 성숙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운동의 신학적 의미를 소박하게 찾아봄으로써 한층 더 신앙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삶으로써 증거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세례자 요한의 증거자 예언운동

똑바로 운동의 성서적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약의 예언 운동을 말할 수 있고, 구약의 히브리 사상과 신약의 그리스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옛 예언자이면서 새 예언자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이 바로 똑바로 운동의 영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례자 요한 당시에 많고 다양한 세례운동이 있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개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세례운동, 사해 연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엄하고 이단적인 에세네파의 세례, 다른 종파 종교의 세례운동 등 당시의 사회 안에는 많은 운동들이 있었다. 마치 오늘날 시민단체들의 사회운동과 흡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세례운동이 성령으로 주님에 의해 약속된 이름과 그 얼굴을 향해가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 것이다. 요한 자신의 세례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의 신학적 출발점은 바로 요한의 세례운동과 일치한다. 즉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세례를 위한 준비자세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에서 그 동질성을 발견해야 한다.

똑바로 운동은 회개운동이며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한 세례 준비를 위한 예언자적 세례운동이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먼저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이다. 요한의 회개는 구체적인 윤리적 죄에서 회개하라는 선포이다. 법과 질서 그리고 사회 공동선에서 위배된 모든 그릇됨에서 돌아서라는 선포이다. 죄를 끊고 돌아서서 하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뉘우치고 끊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깨끗한 자로 정화된 자로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요한 회개의 세례운동이다. “독사 죽속!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었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마태 3.7-8). 요한의 회개와 세례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2000년 총선 때 시민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정신과 연관이 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낙천·낙선운동은 옳지 않은 운동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그 때의 낙천·낙선운동 자체는 불법이더라도 그 운동의 정신은 필요했다고 본다. 결국 총선 이후에 적지 않은 시민운동·단체와 지도자의 정치적, 개인적 어려움은 불법적인 운동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당시 한층 더 바람직한 운동은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국민의 판단까지 마치 해결해 주는 운동이 아니라, 공천된 사람의 객관적인 정보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면 낙선시키는 이들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과 무관한, 아주 건전하면서도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운동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시대의 환경과 성숙도의 결실이기도 하다.



똑바로 운동도 역시 개인적인 지시나 비판,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위화감이 들 정도로 일방적이지 말았으면 한다. 법과 질서, 윤리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 예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것과, 그러한 무질서 무법, 비윤리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고발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운동이지만 낙천·낙선운동과 같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국민들의 식별을 대신 내가 한다는 식의 운동이 아닌,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식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알림 운동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 영성운동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와 행동, 죽음이 너무나 유사하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자 마자 갈릴래아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다. “회개하시오, 하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마태 4,17).

그러나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의 말씀은 그 내용 면에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와 세례보다 훨씬 더 신학적 의미가 넓고 깊이가 있으며, 모든 이가 참여하는 현실적이고도 예언자적인 영성운동의 성격임을 나타내고 있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와 세례가 윤리적 죄와 법, 질서의 파괴에서 벗어나는 죄의 용서와 정화의 세례라면 예수님의 회개는 그것까지도 포함하지만, 윤리적 죄를 짓지 않는 죄 피하기 중심의 소극적 운동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회개운동, 성령으로 인한 세례운동임을 간파해야 한다.

사실 예수님의 회개는 죄인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온전히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하느님 백성의 영성적 성숙운동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준비하는 회개운동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개운동은 하느님 나라 운동이며 영성운동이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 안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깨달으며 기억할 때 사회의 죄, 윤리적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적 삶은 하느님 안에서 똑바로 살고자 하는 궁극적 구원의 선포인 하느님 나라 운동이다. 역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회에서 소외받은 실존과 버림받은 실존을 찾아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셨다.

똑바로 운동은 바로 궁극적 하느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 운동이어야 한다. 똑바로 운동은 세상에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운동, 윤리적 차원의 개인적 정화와 사회적 차원의 법질서 도덕성 회복의 운동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안에 올바르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고백의 영성운동이어야 한다.

맺는 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이 기도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언자적 자세로 선포하여야 하겠지만, 무질서한 탓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인상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실천한 사회 회개와 정화(세례)의 예언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똑바로 운동은 예수님을 닮아 하느님 나라 선포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쇄신과 회개를 시작으로 하는 영적 증거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럴 때 사회 예언적 정화운동의 측면과 교회 안의 영성적 성숙의 회심운동으로 거듭나 결국 사회와 교회 어디에서나 함께 느낄 수 있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똑바로 운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똑바로 운동은 사회와 교회가 모두 자기 본질을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 찾기 운동이다. 이는 교회 사람들부터 똑바로 올바른 삶과 정신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똑바로 운동은 이같이 사회와 교회에서 누가 어디서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본질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복음 운동이기를 바란다. 기도 안에서 우리 평신도 전체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와 세례 그리고 궁극적인 하느님 나라 운동을 똑바로 살아가는 증거자 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유박해 순교2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신앙대회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아!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높으신 영광에 불타는 녀이여~.”

지난해 9월 16일 구름 한 점 없는 서울 하늘 아래 드넓은 동대문운동장은, 순교자 찬가를 목청껏 부르며 순교자를 현양하는 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순교자 현양 신앙대회가 열린 것이다. 서울대교구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신앙대회에는 모두 5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되새기며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고 선열들의 고통과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다짐하였다.

제1부 순교자 향기, 제2부 순교자 현양 미사, 제3부 유해 경배·시복시성 청원 기도





로 이어진 이날 신앙대회에서 특히 순교자를 압송하는 행렬과 순교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 김옥균 주교,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이 함께 집전한 신앙대회 장엄 미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다짐한 순교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일만이 남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 대주교는 “현재 이땅의 103위 순교 성인들은 모두 신유박해 이후에 순교한 분들로, 이 신앙대회에서 기리는 신유박해 순교자들이 시복시성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신자들의 기도와 노력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신앙대회에서 함께 바친 ‘나의 결심 나의 봉헌’으로 순교자들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땅의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우리는 신유박해 순교자들을 따라 살며 그분들을 모범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헌하는 ‘나의 결심 나의 봉헌’이 신유박해 모든 순교자들이 시복시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찾아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강당에서 2001년도(제18회) 가톨릭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 서는 사랑 부문에 정옥기 안드레아 씨가, 문화 부문에 신치구 베르나르도 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최홍준 한국 평협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은 여규태 평협 회장 인사, 경과보고, 시상, 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교의 격려사, 수상자의 인사, 축가 등으로 이어졌다.

올해 가톨릭 대상 수상자는 류덕희 한국 평협 상임 고문을 비롯한 한국 평협 회장단과 임원 등 13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한국 평협은 지난 1983년부터 해마다 가톨릭 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 봉사해 온 사람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두 수상자의 공적을 간략히 소개한다.

사랑 부문

정 옥 기 안드레아(1937년생)

정옥기 안드레아 씨는 송파구 가락시장 내 잠자리가 없는 행려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서울 서교동 소재 '협동교육원'에서 신용협동조합 정규교육(1968년 제21차)을 받고 경북 김천 지역 지례성당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한 데 이어, 1977년부터 서울 용산시장 '베들레헴의 집' (행려자 급식소) 운영위원을 지낸 경험을 발판삼아 1987년 가락시장 '하상 바오로의 집'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가락시장 성당'을 설립하는 데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990년에는 당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과 고건 당시 서울시장의 도움 등 각

계 각종의 호응을 얻어 '하상 바오로의 집'을 개설하고 그 운영위원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상 바오로의 집'은 정옥기 씨와 뜻을 같이한 분들이 시장 부랑인들의 식사와 잠자리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백방으로 뛰면서 서울시로부터 가락시장 안에 39평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가건물을 짓고 1991년부터 급식을 시작한 무료 급식소이다. IMF 사태로 행려자들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1998년 3월 관계 당국과 가락성당의 지원으로 무료 급식소를 62평의 콘서트 건물로 확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 부문

신 치 구 베르나르도(1932년생)

신치구 베르나르도 씨는 항상 성실하고 겸손한 생활자세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적 봉사를 신앙인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온 분이다. 오랫동안의 군복무기간 중 사랑의 증거를 통한 신앙생활로써 복음선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서울 가락동본당의 제4대 총회장으로 임명되어 평신도 단체를 대폭 증설하는 등 교회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신치구 씨는 특히 평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교회의 성장 발전과 사회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고자 1992년 5월 1일 사재를 털어 평신도 연구기관인 '가톨릭 신앙생활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교회의 실상과 선교환경을 진단하는 각종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 한편 만 3년에 걸친 준비 끝에 김수환 추기경 전집을 발간하여 교위 성직자의 말과 글들을 역사적 사료로 정리, 영구히 보전케 하였다.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 공동행사에 참석하고자 북한을 방문했던 337명이 6박 7일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21일 귀환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통일의 일꾼들, 방북단의 귀환을 환영합니다”와 “김정일의 하수인들, 북으로 돌아가라”는 상반된 플래카드를 앞세운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남남갈등이 이토록 극명한 데 대해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원래는 14일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장소 문제로 정부의 방북허가가 상당히 늦어짐으로써 일정이 하루 늦게 시작되었다. 북측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한 데 반해 남측에서는 장소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는 양측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중대한 문제였다.

곡절 끝에 하루가 늦은 15일에도 또 예정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게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북측이 ‘참석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참관만이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해 왔고, 남측 추진본부 집행부가 평양 일정을 논의하는 사이, 대표단의 3분의 1 가량이 개막식 행사에 따라가고 만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켰으니, 다음날 아침 서울에서 전해온 소식은 나라 안이 온통 들끓는다고도 했다.

이번 방북기간 중 천주교 신자들은 남측 단장을 사제가 맡고 있는 만큼 단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면서 개폐회식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자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사안이든지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일정이 늦어지는 수가 허다했고, 개막식 역시 남측 대표단의 참석을 기다리면서 일정을 늦춘 사례로 꼽힌다.

방북 첫날 저녁 만수대와 양각도 호텔로 나뉘어서 열린 북측 주최 만찬행사 역시 상당히 늦은 시간에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까지, 이틀에 걸쳐 저녁식사를 하는 꼴이 되기도 했다.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연회에는 우리측 단장 김종수 신부와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양각도 호텔 연회에는 북측에서 적십자회와 종교인협의회를 맡고 있는 장재언 위원장과 천도교 청우당 류미영, 오익제, 그리고 여운형 씨의 딸 여원구 등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측의 조선 천주교인 협회 중앙위원회 장재철 위원장과 함께 평양 장충성당 앞에서(필자는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북한 텔레비전은 밤 10시에 마감 뉴스를 내보내고 10시 30분이면 만화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방송을 마치는데, 15일과 16일에는 마감 뉴스 후에도 대형행사 내용을 요약한 프로그램을 보여주더니, 다음날에는 1945년 8월 광복 직후 미군정으로부터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의뢰받으면서 해방정국의 조명을 받았던 몽양 여운형의 일대기를 북측 시각으로 해석해서 제작한 영상물을 이튿날 새벽 1시까지 방송해 주었다. 다분히 이번 남측 대표단을 의식해서 송출한 것으로 보였는데, 몽양이 평양을 방문한 다음 북측에 기울게 되자 미군정이 그를 암살했다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17일에는 대동강 유람선을 타고 만경대에 내려 김일성 생가라는 곳을 찾았고, 2000년 10월 10일에 개통한 평양-남포간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를 잠시 시주(試走)한 데 이어 동명왕릉과 국립도서관 격인 인민대학습당을 둘러보았다. 안내한 한 청년은 조선왕조의 시작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옛 고구려의 드넓은 땅을 못내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18일에는 고려항공기 편을 이용해 삼지연 비행장까지 날아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백두산엘 올랐고, 19일에는 묘향산을 찾았다. 백두산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났다고 하는 '밀영' 등을 안내받았고, 묘향산에서는 집권자들이 외국 원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모아놓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찾는 등 북측이 잡아놓은 일정에 맞추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21일 발표한 공동보도문 내용에서처럼 이번 방북을 통해 남과 북, 해외의 대표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고,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평화통일과 민족의 안전을 위해 민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16일에는 일제의 만행과 역사왜곡의 책동을 폭로하는 남북 공동 사진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17일에 이어 19일에도 묘향산에 가기에 앞서 장충성당을 찾은 가톨릭 신자들은 북측 신자들과 함께 연중 제20주일 미사를 봉헌했다. 주례 사제인 김종수 신부는 "나는 불을 지르러 이 세상에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이날 복음을 묵상하는 강론을 통해, 구약시대 때 '말씀'을 의미했던 불이 이제는 평화와 통일의 불씨가 되어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 미사 끝에 여규태 한국 평협 회장은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신앙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북측의 모든 신자들이 모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룩할 수는 없지만 두 번, 세 번 자주 만남으로써 차츰차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장충성당 공동체와 북녘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맺었다.

이번 방북기간 중에 종교, 문화, 예술, 경제, 노동, 농민, 청년, 여성, 학술, 언론 등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협력하고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한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평신도의 신원과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는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 중에 들고,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자들을 말한다”(교회 헌장, 31항).

공의회의 이 같은 가르침과 정신에 따라,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한국 평협)가 결성되었다.

같은 해 주교회의는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제정하여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 후 1970년부터는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오고 있다.

- ◆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이 땅의 모든 평신도들이 복음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고, 경험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각 교구 협의회와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 평협이 그 동안 교회 안팎으로 펼쳐온 사도직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는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행사, 1989년 서울 세계성체대회,

2000년 대회년의 ‘새 날 새 삶 운동’ 등에서 평신도들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와 80년대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라 정의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1983년부터는 ‘가톨릭 대상’을 제정하여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누룩 구실을 해온 숨은 봉사자, 곧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시상해 오고 있다.

1983년부터 펼친 ‘내 탓이오!’라는 신뢰 회복 운동으로 교회 안팎에서 큰 호응을 얻은

- ◆ ◆ 한국 평협은 이제 새 천년기에 접어들어

2001년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뚝바로’라는 표어 아래 다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새 천년대의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새로운 방향

한 홍 순 토마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회장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방향

2001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Plitvice)에서 열린 국제 가톨릭 평신도 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Catholic Men, UNUM OMNES) 운영위원회는 세계 주요국 교회의 평신도 단체 대표들이 모여 새 천년대를 맞이하는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상호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다짐한 매우 뜻있는 회의였다. 국제 가톨릭 평신도 협회는 1948년에 설립된 국제 남성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가톨릭 액션, 독일 가톨릭 교우 협회 등 세계 40개국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독일 등 22개국 평신도 단체 대표 60여 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벌인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3년 간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방향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1) 평신도 사도직에 투신하기 위해 기도와 성사 생활과 사랑 실천을 통해 영성생활을 더욱 심화하며, 사도직 단체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가정이 되어주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기로 한다.

2) 가정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평신도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이도록 권장하며, 구조적인 재정 지원을 비롯한 국가의 적극적인 가정 보호 정책을 지지하고, 태아, 병자, 장애인, 노인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한다.

3)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창조 질서 보전에 적극 나서기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평신도 사도직 국제 기구간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국제 가톨릭 액션 연합(IFCA) 및 세계 여성 연합회(WUCWO)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인 각국 대표들

한편 필자는 주최측의 요청으로 한국교회의 최근 상황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선 한국교회가 불과 40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구 대비 9퍼센트에 가까운 4백만 명이 넘는 신자를 헤아리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펼쳐 오고 있는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와 북한 동포를 위한 물질적 원조 사업, 인권주일, 낙태 합법화 반대 100만 명 서명, 사형제도 폐지 운동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서울대교구의 사회교리학교, 교구 시노드 준비상황,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얼마 전에 시작한 '똑바로 운동'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사회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똑바로 운동'에 대해 선망의 눈빛으로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희망의 표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동유럽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여야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공산주의 체제 붕괴 10년 이후 중부 유럽(동유럽)의 교회와 사회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지역의 교회와 사회를 재건하는 일은 특히 유럽 교회가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제 가톨릭 평신도 협회도 그 동안 이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활동을 벌여왔다.

이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의 교회 및 사회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한 뒤 참석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에서 확인된 점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거의 모든 중부 유럽 국가들이 공통된 문제들을 겪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실제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 자유의 참된 의미를 인식하는 것, 품위 있는 인간 생활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소련 체제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 교회와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자유와 책임 의식이 결여된 소련형 인간상(homo sovieticus), 경제 및 행정 분야의 유능한 인재 부족, 특히 젊은 인재 부족, 소련과의 경제적 유대관계 단절로 인한 경제 위기, 시민 단체의 저개발 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새로운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탐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크라이나의 가톨릭 교회(동방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장기간에 걸친 공산 정권의 박해 이후 구조를 쇄신하며 안정을 되찾고 성직자 양성을 개선하는 등 내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는 우선 빈민구호 활동,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속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주의적인 공산주의적 무신론의 결과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또한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교서를 발표하여 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1946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러시아 정교회에 편입되었던 우크라이나의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의 종교 전통과 종교적 자결권을 억압했던 러시아의 정체성을 탈피하여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러시아 정교회와 일치를 위한 대화에 나서려 하는 반면, 러시아 정교회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가톨릭 동방교회는 본당 3천 개, 신자는 인구의 10퍼센트인 5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본당 9백 개, 신자는 인구의 2퍼센트인 100만 명으로 폴란드계이다.

중앙·동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공산주의 시대에 대한 그리움에 깊이 젖어 있는 한편, 교회들은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과거에 잃었던 것들을 되찾고자 하는 열의에 차 있다.

헝가리 종교연구소 소장인 미클로스 톱카 교수는 대다수의 중앙·동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깊은 향수를 느끼고 있으며, 소련 체제하에서 살기가 더 나았다고 말한다고 발표하였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에서는 노인층의 77.6%, 18-30세 연령층의 73%가, 헝가리에서는 노인층의 69.5%, 18-30세 연령층의 57.8%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그리스도인 지식층을 양성해야 하는 과제

불세비즘이 지배한 4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당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들은 극심한 차별을 당했다. 신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 당했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지식층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이곳의 교회들은 사회의 상류층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 학자, 언론인을 비롯한 새로운

그리스도인 지식층을 양성할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곳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1989년 이후 가능하게 된 자유화의 추세를 이용하여 신앙 분야에서의 사유화, 즉 계도화에, 그리고 교회 활동을 내부지향적인 것으로 국한하려는 성향에 중지부를 찍는 일이다.

이곳 교회들의 상황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 시대에 습득한 것을 버리는 문제이다. 버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신뢰 결핍이다. 실제로 교회에 대한 신뢰는 새로운 시대와 더불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미클로스 톱카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앙·동유럽 국가들에서는 18-30세 연령층 가운데 신앙을 새로 얻은 사람의 비율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방 선진국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회의가 열린 크로아티아는 인구 5백만 명 중 약 80%가 가톨릭 신자로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95년까지 세르비아와 벌인 치열한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그러한 만큼 독립을 쟁취한 지금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9월 16일 고스피츠의 주교좌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마친 뒤 그곳 시민들이 전몰자 추모비 앞에 양손을 서로 쇠줄로 연결해 묶은 채 도열하여 헤이그와 자그레브의 감옥에 전범으로 갇혀있는 그들의 독립 영웅들을 위해 기도하던 모습,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던 그곳 교구장 밀레 보고비치 주교의 목자다운 모습을 보며 크로아티아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도전의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

-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준비와 과정
-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의미와 성과
-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 최종 성명
- 평신도대회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메시지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준비와 과정

- 최 홍 준 파비아노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무총장

- 한국의 7명을 포함한 15개국 대표 133명이 참가한 대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가 주관하는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2001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에 걸쳐 태국 방콕 근교의 샴프란에 자리잡은 반푸완 사목연구소에서 아시아 15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즉 사회교리 실천을 체득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대표들이 참가하였고, 주제는 “평신도 : 새로운 교회의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이었다. 15개국 대표들은 대만의 평신도 담당 티캉 대주교를 비롯하여 태국의 상발 수라사랑 주교, 인도네시아 시투모랑 주교 등 9명의 주교와 9명의 사제, 2명의 수녀, 47명의 평신도 등 67명의 대표와 옵서버, NGO 협력자, 전문가 그룹,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 평신도위원회 관계자, 태국 평신도 사도직 단체 임원 등 모두 133명이었다.

한국교회에서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신부와 여규태 한국 평협 회장, 한홍순 서울 평협 부회장, 이정희 한국 평협 국제협력분과위원장, 한국노동청년회 임미영 회장, 한국여성신학회 이유리 홍보부장, 그리고 필자 등 7명이 참석하였다.

● 크나큰 감명을 준 현장체험

이번 대회는 현장체험을 가진 뒤 이에 따른 반향을 함께 듣고 정리하는 데 비중을 두었으며, 국가별 보고와 NGO 즉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상 소개, 개인 체험담 발표, 복음 나누기 아모스 프로그램, 최종 성명 채택, 평가 모임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현장체험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체험-성찰-행동'의 3단계 과정을 평신도 양성 프로그램에 활용할 것을 제시한 '최종 성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크나큰 감명을 주기에 충분했다. 첫날 저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둘째 날 열세 군데로 나뉘어 찾아간 현장체험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한국은 세 군데로 나뉘었는데, 이기우 신부 등이 이주 청소년 직업훈련 센터를, 한홍순 교수와 필자가 인간 개발 재단을, 그리고 여규태 회장과 이정희 교수가 '거룩한 가정'이란 이름의 노인 복지 현장을 찾아갔다.

방본 이주 청소년 직업훈련 센터는 태국 북쪽 지방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들에게 봉제와 컴퓨터 등 기술훈련을 시키는 곳이다.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해 도시로 몰려든 청소년들이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가난한 아이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곳을 다녀온 이들의 반향이었다.

그들은 "우리 역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한 부분"이라면서 "우리 또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며 지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가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플랜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전에 거절했던 봉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간 개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어 신부는 구속주회 소속의 미국인 사제로서 30여 년 동안 태국의 빈민과 불우한 사람들, 고통받는 아이와 어른들을 돌봐온 봉사자였다. 해외 은인들의 도움으로 방콕의 빈민가 한가운데에 빌딩을 짓고 에이즈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소중하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봉사자였다. 그 현장을 보고 돌아온 우리는 한 사람의 증거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나누었고,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인도에서 온 한 여성은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치유했느냐?"고 물으면서 시장 바닥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체성사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이곳

현장을 보고 돌아온 우리는
 한 사람의 증거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나누었고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태국에서는 소수인 가톨릭이 거대한 종교사회에 살면서 종교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성(性)의 노리갯감으로 전락한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면서, 남부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5000달러를 주고, 여섯 살쯤 되면 또다시 얼마를 더 주는 성 상품화 현상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아시아의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가 당면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체험을 위해서 주최측은 「생명의 복음」 「평신도 사도직 교령」 「평신도 그리스도인」 「민족들의 발전」 「백주년」 「사회적 관심」 「가정공동체」 「교회현장」 「현대의 복음선교」 등 여러 문헌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뽑아 대회가 열리기 전 각 나라에 보내줌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미리 익히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이번 평신도대회에서는 또한 1998년 4월과 5월 바티칸에서 열린 주교 대의원의 아시아 특별총회 후속 문헌으로 1999년 11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인도 뉴델리에서 서명, 반포하신 「아시아 교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최종 성명 세 번째 부분 ‘과제들’에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맺는 연대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소박하게 살아갈 때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소박한 삶, 깊은 신앙, 그리고 모든 이, 특히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성실한 사랑은 복음의 빛나는 모범을 실천하는 일” (34항)임을 천명했던 것이다.

현장체험을 한 뒤 참가자 전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현장체험에 대한 반향을 듣고, 예수회 사제의 진행으로 방콕의 철학 교수, 경제학 교수 등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제발전에 따른 정신세계의 황폐화와 여기에 따른 가톨릭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으로서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느님과 자연과 이웃과의 3자, 또는 4자 관계를 강생과 창조, 관계쇄신의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아시아 교회들이 연대하고 타종교 신자들과도 연대를 강화해야

최종 성명에서는 여섯 개 항목을 결의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교리에 바탕을 두고 평신도 양성에 힘쓰며 각자의 나라와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아시아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타종교 신자들과도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체 회의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가정이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한 고유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기로 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대회 개최 전례와 개회 행사는 개막 사흘째인 3월 21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었는데, 방콕 대교구장 미차이 추기경이 격려 인사를 했고, 방콕 주재 교황대사 베르나르디 대주교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교황 성하의 이 메시지 내용은 최종 성명 결론 부분에서도 언급했고, 대회 참가자들의 서명을 받아 교황님께 보낸 서한에서도 이를 포함한 대회 내용 전반에 걸쳐 보고드릴 수 있었다.

- 각 국가별 보고와 지역별 보고, 교회의 대응

회의 넷째 날에는 국가별 보고와 지역별 보고를 듣고, 교회의 대응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 금융개혁,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대립과 실업문제 등을 언급하고 민족화해를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氣) 수련과 치유기도 등에 대한 교회의 대응,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 규정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청원, 사형폐지를 위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세미나와 타종교와의 협력, 그리고 이런 서명운동을 교회운동·단체들이 연대해서 벌인 점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교회는 제1차 아시아 평신도대회(1994년)의 후속조치로 서울대교구에서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평협이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평신도대회를 개최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을 서로 나눈 점 등을 전하였다.

한국 외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부격차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불의와 부패, 외채,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 정보화 사회에서의 종교적, 윤리·도덕적 문제 제기, 이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와 확산을 보고했고,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전역에서 가톨릭이 소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태국은 인구 6천2백만 명에 가톨릭 신자가 겨우 25만 명이고, 인도는 10억 인구 중 힌두교가 83%, 회교가 11%, 그리스도교는 2천만 명이 채 안되는 형편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은 포콜라레 운동을 중심으로 종교간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대표단의 한홍순 교수의 진행으로 국가별 보고를 정리하고 평가한 전체 모임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교회의 대응 면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아주 적었다는 점을 돌아보게 되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평신도 양성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적인 가치와 아시아의 규범, 새로운 아시아인으로 양성하는 문제가 새 천년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아시아 교회에서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공동체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타종교 신자와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선을 위해 일하고, 사회교리 실천, 특히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검소한 생활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개인적인 '삶의 증거'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노동청년회 임미영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회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들려주었다.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의미와 성과

- 한 홍 순 토마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회장

2001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의 근교 삼프란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 평신도대회는 1994년 한국에서 열렸던 제1차 아시아 평신도대회에 이어 7년 만에 열린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

우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 평신도대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개최된 대륙 차원의 평신도대회로서는 세계 교회에서 유일한 것인 바, 이것이 제1차로 끝나지 않고 제2차 대회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 있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회의의 내용 면에서도 제1차 대회의 주제인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을 이어받아 그것을 한걸음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 있는 일이다. 그러한 만큼 제1차 아시아 평신도대회를 개최한 한국 측으로서는 이번 회의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제1차 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베트남 대표들과 중앙 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대표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확대된 그 동안의 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실감하게 해주는 한편, 여전히 대표 파견이 어려운 여러 나라의 교회와의 연대를 굳건히 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평신도들이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시아 각 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행동 계획을 짰다는 것 또한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회의 방식이야말로 하느님 백성 모두의 친교의 교회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신도 : 새로운 교회의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번 대회는 15개국 대표 70여 명이 열세 그룹으로 나뉘어 태국 교회나 불교 등이 운영하는 불우한

이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사업 현장을 답사하고 그 체험을 나누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었고, 이것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겨주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번 대회는 각 나라의 보고를 통해 아시아가 당면한 심각한 현안들을 분석하고 교회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새 천년대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가 격화되고 있고, 여전히 종교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극심한 빈부 격차, 사회적 불의, 계급 차별, 부패, 정치 불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도시화, 이주, 외채, 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스 미디어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말미암아 문화의 변화가 가속화하여 종교적, 도덕적 가치들을 손상시키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교회의 대응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몫은 매우 미흡한 것이었음을 반성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이들은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으로 투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소공동체를 육성하며, 타종교 신자들을 비롯하여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교리를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겸손한 생활 방식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특히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회교리 교육을 실시할 것, 그 방법의 하나로 '현장체험-성찰-행동'이라는 과정을 활용할 것, 이번 회의의 후속 조치로 자신들이 구상한 행동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진력할 것, 복음 중심적 공동체를 육성할 것,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아시아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타종교 신자들과 연대해 활동할 것, 가정이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한 고유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제1차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새 천년대를 준비한 회의였다면 이번 제2차 대회는 새 천년대를 열어나가는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시아의 시대요 평신도의 시대인 새 천년대에 아시아의 평신도들이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시작하여" 복음의 새봄을 활짝 꽃피워 아시아를 인류의 희망의 대륙으로 봉헌하는 데 투신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대회였다.

평신도대회 최종 성명

“여러분은 복음의 교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필립 1.27).

1. 시작하는 말

1.1 우리 제2차 아시아 평신도 대회 참석자들은 아시아 15개국(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베트남) 대표이다. 우리 남녀 평신도, 청년, 수녀들은 신부, 주교들과 함께 2001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곳 타이 샴프란의 ‘반푸완’ 사목 연구소에 모여, ‘평신도: 새로운 교회의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성찰하였다. ‘사회 교리의 실천과 관련한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에 대하여 성찰하였던 제1차 아시아 평신도 대회와 맥을 같이하는 이번 주제는 교회의 사회 교리뿐 아니라, 2000년 1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7차 정기 총회의 주제인 ‘아시아 교회의 쇄신: 사랑과 봉사의 사명’ 과도 연계된다.

1.2 남아시아,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의 지역 평신도 모임에서는 그 지역 현실에 비추어 교회의 사회 교리를 성찰하여 왔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1.3 이번 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3.1 일터에서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증언하는 가정과 평신도의 잠재력을 활성화한다.

1.3.2 다른 종교 신자들과 함께,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아시아가 직면한 많은 과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1.3.3 다른 교회 단체, 다른 나라의 평신도, 비정부 기구(NGO)와 연대하여 인간의 진보를 위하여 봉사한다.

1.4 우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본토, 미얀마, 북한, 중앙 아시아 국가들 등 지역 교회들의 불참이 안타까운 한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교회의 참석으로 용기를 얻었다.

2. 우리의 체험

2.1 우리는 먼저 아시아의 현실의 일부를 직접 체험하였다. 다른 종교 신자들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라는 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여러 센터들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에이즈 환자들, 노인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이들이 보살핌과 위로를 받으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세계화된 시장 경제에 희생되고 있는 여자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도움과 지도를 받으며 새롭게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었다. 우리는 무자비한 사회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을 만났다.

2.2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눈으로 보고 느끼며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범에 감화를 받은 우리는 '소유와 착취'가 아닌 '사랑과 봉사'야말로 인간 행복의 열쇠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돈이나 지식보다는 마음과 지혜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 줄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뜻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좀더 인간다운 사회를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추구할 때 더 큰 힘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2.3 우리는 각 지역 보고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교회의 대응을 대강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교회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고통받는 이들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평신도들도 있었고, 정의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평신도들도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에 비하여 볼 때, 평신도로서 우리의 대응은 불충분하였다.

2.4 우리가 가진 인력과 비정부 기구의 여러 대표들은 우리에게 세계 변화의 주역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실천할 통찰과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2.5 우리는 개인 나눔, 그룹 토의, 공동 작업 등을 통하여 서로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우리는 날마다 성찬례를 준비하고 거행하면서 감응을 받고 친교를 다질 수 있었으며, 문화의 밤 행사를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아시아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더욱더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3. 과 제

3.1 교회 기초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소공동체는 평신도에게 신앙과 삶을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들 소공동체에서 실시하는 신앙 교육과 특히 교회의 사회 교리에 대한 교육은 우리의 선교 의식을 길러 주고, 교회와 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교회 기초 공동체들은 형제적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복음에 따라 살도록 그 구성원들을 도와 주는 데 목적을 두며, 결과적으로 사랑의 문화의 새로운 표현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출발점이다”(『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25항).

3.2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과 일치된 생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직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 “가난한 이들과 맺는 연대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소박하게 살아갈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다”(『아시아 교회』, 34항).

3.3 우리는 교회와 일치하여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이 되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를 실천하며,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처하도록 부름 받았다.

3.4 우리는 공공 생활에 참여하라는 교회의 호소에 시급히 응답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은 특히 정치계와 일터에서 사회 변혁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았다.

4. 결의안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4.1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평신도 교육을 통하여 평신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시키고, 정기적으로 간략하게 교회의 사회 교리를 제시한다.

- 4.2 평신도 교육에 유익한 체험 과정과 성찰, 활동을 활용한다.
- 4.3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각 나라에서 활동 계획을 시행한다.
- 4.4 평신도들이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형성한다.
- 4.5 아시아 교회들 사이에, 또 다른 종교 신자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를 맺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 4.6 가정이 교회의 사회 교리에 바탕을 둔 그 고유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5. 맺음말

5.1 함께 보낸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풍부하고 유익한 경험을 쌓아 새로운 각오로써 우리의 과제들을 처리할 새 힘을 얻어 돌아간다.

5.2 우리는 대회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신 교황 성하께 깊이 감사 드린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은 수에 지나지 않지만, “아주 작은 누룩이 커다란 빵 덩어리를 부풀릴 수 있는 것처럼……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29항 참조).

5.3 우리는 제2차 아시아 평신도 대회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야에 끝나치며, 아시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도 새 천년기를 시작하며 가난을 선택하고 하나가 되라는 복음의 근본적 호소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5.4 우리는 회의 주최자이며 조직자인 태국 가톨릭 평신도 기구 협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며, 또한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 위원회에도 감사한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19호에서〉

평신도대회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메시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차 아시아 평신도 대회에 참석하고자 삼프란의 반푸완 사목 연구소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신 방콕 대교구장 미카엘 미차이 킷분추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주교, 신부, 수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온 교회의 특별한 은총과 자비의 시간이었던 2000년 대회년이 폐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모였습니다. 저는 성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낌없이 복을 내려 주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그러한 풍성한 복이 깊은 내적 쇄신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최근의 교황 교서 「새 천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년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그분을 관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새 천년기」, 29항 참조).

제삼천년기를 시작하며 열린 제2차 아시아 평신도 대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은 대륙이며, 위대한 종교들과 여러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수천 년 전통의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시아는 예수님의 탄생지이며 교회의 발상지입니다. 교회의 꾸준한 선교 노력

덕택에 복음은 지난 이천 년 간 아시아 대륙 곳곳에 퍼졌으며, 우리는 이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찬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 매우 극소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에 자극을 받아,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에서 말씀하신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올랐다. 하늘 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마태 13.33). 사실 아주 작은 누룩이 커다란 빵 덩어리를 부풀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인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그리고 사제들과 평신도들, 다른 모든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아시아에 복음화의 빛나는 자취를 남겼습니다.

물론 모든 새로운 선교 노력에는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다른 종교 신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게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필수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선의의 모든 씨앗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주님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당신의 강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고, 구세사의 충만이시며 중심이시라는”(교황청 신앙교리성 선언 「주님이신 예수님」(Dominus Iesus), 13항) 진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평신도들의 대회년’을 거행하면서, 저는 모든 대륙의 평신도 대표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의회는 비록 35년 전에 폐막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의 특별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회가 가르침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그 사건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평신도들이 공의회 문헌을 다시 손에 들어야 합니다. 공의회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고 열중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을 열어 주었습니다”(평신도들의 대회년 강론, 2000.11.26., 3항).

여러분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성덕을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성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제5장 참조). 성덕의 추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삶의 계획의 첫째가는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고유한 소명을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새 천년기」, 46항 참조). 이러한 소명은 본질상 가정과 사회, 일터, 연구실, 우정을 다지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 곧 세속에서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의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5항 참조).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공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별히 체험하며 성화되는 곳입니다.

2000년 대회는 새로운 복음화의 시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성공적인 복음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아시아는 거룩한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협회와 운동 단체, 기타 교회 평신도 기구들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교회 생활 참여를 훌륭히 증명해 줍니다. 그러한 모든 활동이 지역 주교들과 일치하여 주교들의 합법적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승인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대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에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구원의 시작을 이 의롭고 믿음에 충실하신 분의 세심한 배려에 맡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셉 성인께서는 모든 가톨릭 평신도의 성덕의 모범이십니다. 저는, 요셉 성인께서 지극한 사랑과 배려로 보살피셨던 나자렛 성가정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이번 대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빕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로서 진심어린 축복을 보냅니다.

2001년 3월 12일,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19호에서〉



정의를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

1. 올해 세계 평화의 날(1월 1일)은 지난 9월 11일의 비극적 참사의 그늘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 날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인종 배경을 지닌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날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인간 개인의 철저한 나약함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심리 상태 앞에서, 죄악의 신비 곧 악이 인간사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확신으로 교회의 희망을 증언합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역사는 세계의 모든 역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모든 인간사에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섭리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완고한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며 완전히 불모지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을 시작하는 교회를 떠받쳐주는 힘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힘이 다시 득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열망이 승리하는 세상으로, 참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작품

2. 저는 방금 말씀드린 살육을 비롯한 최근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주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제 삶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할 때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치와 공산 전체주의 아래 제 친구들과 친지들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들과 개인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물음, 곧 '이토록 가공할 폭력에 휘둘린 도덕질서와 사회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저는 자주 숙고하여 왔습니다. 제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르게 된 확신은, 성서의 가르침으로도 확인되듯이, 정의와 용서를 겸비한 대책이 아니면, 무너진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평화의 두 기둥은 정의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3.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정의와 용서가 평화의 원천이며 조건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정의와 용서는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원한과 보복에 대립되는 것이지 정의에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참 평화는 "정의의 작품입니다"(이사 32, 17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한 대로 평화는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질서의 열매, 또 언제나 더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할 사회질서의 열매입니다"(사목 헌장, 78항). 가톨릭 교회는 1500여 년 동안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세상에 세울 수 있고 세워야 하는 평화는 올바른 질서의 평화, 곧 평화로운 질서라고 상기시킵니다(신국론, 19.13).

그러므로 참 평화는 정의의 열매입니다. 정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또 이윤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윤리 덕이며, 법률적 보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는 언제나 깨어지기 쉽고 불완전하며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따라야 하며, 용서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뒤틀린 인간관계를 근본부터 고쳐주고 다시 세워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더 나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든 크고 작은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용서는 결코 정의와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까지 눈감아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충만한 정의입니다. 용서는 적대행위의 잠정적인 중단을 훨씬 더 넘어서는 저 평화로운 질서로 이끌어주며 인간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상처를 밑바닥까지 치유하여 줍니다. 정의와 용서는 둘 다 그러한 치유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담화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평화입니다. 올해 세계 평화의 날은 온 인류가,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 특히 조직적인 테러 행위라는 새로운 차원의 폭력 앞에서 정의의 요구와 용서에 대한 촉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테러 행위의 실상)

4. 오늘날 국제 테러 행위의 공격 대상은 바로 정의와 용서에서 비롯되는 평화입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최근의 테러 행위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공모하는 교묘한 조직망으로 발전해 왔고, 국경을 넘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테러 집단들은 막대한 재원에 의지하여 광범위한 전략을 펼쳐,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테러 조직들이 무방비 상태의 양민들을 겨냥할 무기로 자기네 대원들을 이용할 때에, 죽음을 바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팽배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테러 행위는 중요심에서 나오며, 고립과 불신과 폐쇄를 낳습니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계속되면서 이전 세대들을 분열시켰던 중요심을 모든 사람이 물려받습니다. 테러 행위는 인간 생명의 경시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테러 행위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이는 또한 정치적 군사적 수단으로 테러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자체가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5. 그러므로 누구나 테러 행위에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어디까지나 목적과 수단의 선택에서 도덕적 법률적 한계를 존중하면서 행사하여야 합니다. 범죄자는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범죄의 책임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므로 테러 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나 민족, 종교로 그 책임을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반테러 투쟁을 위한 국제 협력에는 테러 분자들이 그러한 계획을 품게 만드는 억압과 소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용기 있고 단호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권리가 짓밟히고 불의가 묵인되는 상황에서는 테러 분자들을 모집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가 결코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테러 행위의 목적대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 희생자는 누구보다도 국제 연대의 붕괴에 대처할 위치에 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곧 이미 생존의 비좁은 변두리에서 근근이 살아가며 세계적인 경제적 정치적 혼돈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저개발국의 국민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테러 분자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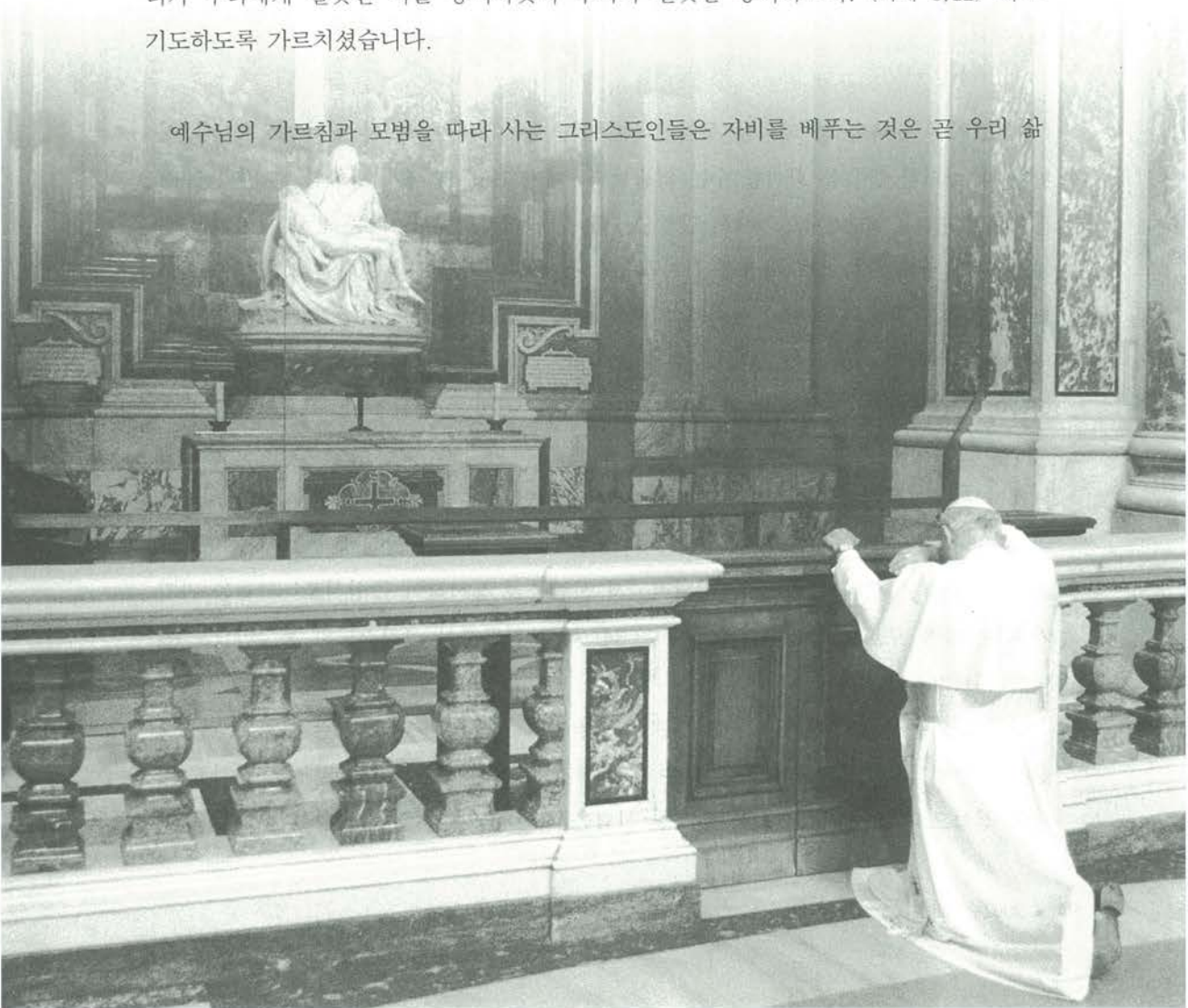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테러 행위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간성과 인생과 미래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증오와 파괴의 대상입니다. 테러 분자들은 그들이 믿는 진리나 그들이 겪는 고통이 무고한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며 벌이는 자신들의 저항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테러 행위는 흔히 자신의 진리관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강요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생기는 광신적인 근본주의의 소산입니다.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나마 진리를 전파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하는(창세 1.26-27 참조) 인간 양심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강요하

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당신 모습을 새겨주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근본주의로 일컬어지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철저히 대립되는 태도입니다. 테러 행위는 인간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도 부당하게 이용합니다. 결국 테러 행위는 하느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우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7. 그러므로 어떤 종교 지도자도 테러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되며, 선동해서는 더 더욱 안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테러 분자로 선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테러 분자들의 폭력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도 대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마태 6,12)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우리 삶



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셨으니(1요한 4.7-12 참조)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또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성 금요일의 수난사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시편 102.3-4, 10-13 참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 9.13)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언제나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요구)

8. 그러나 용서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용서하여야 합니까? 용서를 성찰할 때 이러한 물음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997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용서를 베풀고 평화를 얻으십시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상기하면서, 저는 용서가 사회적 실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윤리와 용서의 문화가 지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태도와 법률로 나타나는 용서의 ‘정치’를 희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서의 ‘정치’를 통하여 정의는 더욱더 인간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자연적 본능을 억누르는 개인의 선택이며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준은 죄인인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 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34) 하고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야말로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원천과 기준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인간 이성의 빛으로 용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경험하고 다

른 사람들이 자기를 너그럽이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 안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며 믿고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어합니다.

9. 그러므로 온전히 인간적인 행위인 용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구조 안에 있는 사회적 존재이고, 좋게든 나쁘게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사회에도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 집단, 단체, 국가 그리고 국제 공동체가 끊어진 유대를 새롭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각박한 현실을 타개하며, 호소할 데 없는 이들을 차별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은 정의와 연대를 특성으로 하는 미래 사회상의 기초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하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될 때, 이는 인간 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힙니다. 많은 자원이 발전과 평화, 정의가 아니라 무기를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화해의 실패로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용서의 실패로 발전은 그만큼 지연됩니다. 평화는 발전의 본질 요소이며, 참 평화는 오로지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왕도

10. 용서는 즉시 이해할 수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제안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용서는 실질적인 장기간의 이익을 위하여 표면적인 단기간의 손실을 감수합니다. 폭력은 정반대입니다. 표면적인 단기간의 이익을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용서는 나약해 보이지만, 용서를 해주거나 받을 때 커다란 정신적 힘과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용서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성을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하며, 창조주의 광채로 더욱 빛나게 합니다.

복음에 봉사할 직무를 받은 저로서는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직무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들의 관계에서 인간 정신이 널리 되살아나도록, 이번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하려는 바람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1. 용서에 대하여 성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화의 원인인 뿌리깊은 증오와 끊임이 없고 이어지는 듯한 개인적 집단적 비극을 양산하는 몇몇 갈등 상황들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하느님과 인간이 만난 복된 땅, 평화의 임금님이신 예수님께서 생활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룩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혼란한 국제 정세는 긴장의 고조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50년 이상을 끌어온 아랍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더욱 강력히 촉구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테러 행위와 전쟁에 의존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양편 모두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결국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의와 화해를 이루려는 의지만 있다면 또 그러한 의지가 있을 때, 양편의 권리와 요구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고 공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거룩한 땅에 사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상호 존중과 건설적인 화합의 새 시대를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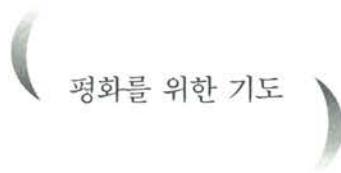
종교간 이해와 협력

12. 이러한 모든 노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파들과 세계의 대종교들은 테러 행위의 사회적 문화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존엄성과 위대함을 가르치고, 인류 가족은 하나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널리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와 협력, 그리고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구체적인 영역으로서, 이를 통하여 종교는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테러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종교적 도덕적 정당성도 부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13. 고의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증언할 때,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와 자유 안에서 평화로운 질서를 추구할 수 있는 국제 사회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으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여러 종교들은 상호 이해와 존중과 신뢰에 이르게 하는 용서의 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들이 평화와 반테러리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용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바라는 사람들은, 더 높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14.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는 결코 평화 활동에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질서와 정의, 자유를 위한 평화 건설의 본질 요소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이 인간 마음에 넘쳐흐르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당신 은총의 힘으로 장벽과 폐쇄만이 보이는 곳에 평화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의 끝없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에서도 인류 가족의 연대를 강화해 주시고 확대해 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는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정의와 올바른 질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자유, 특히 모든 개인의 인권과 시민권의 바탕인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는 하느님의 용서를 바라며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는 용기를 주시도록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에서, 저는 2002년 1월 24일에, 성 프란치스코의 고향인 아시시에 모이는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종교적 신념이야말로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상호 존중과 화합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폭력과 분쟁을 막는 주요 해독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엄청난 시련의 시기에 인류 가족은 희망의 확실한 근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름다운 기도처럼, 아시시에서 우리가 모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느님께 간청하며 이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희망입니다.

15.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담화에서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인류 가족의 선익과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선익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막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에 언제나 인류의 진정한 선익에 비추어 또 언제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증오심과 복수심 또는 파괴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경고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이번 평화의 날에 모든 신자가 테러 행위의 희생자들과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테러와 전쟁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더욱 간절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자비한 행동으로 하느님과 인류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쳐 그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깨달아 모든 폭력적 지향을 포기하고 용서를 바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온 인류 가족이 정의와 자비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영구적인 참 평화를 얻게 되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01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의 교회 활동과 신앙

- 차 기 진 루 가 ● 양업교회사연구소 연구 소장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올해(2002년)의 평신도로 순교자 정약종을 선정하였다.

그분의 순교정신과 투철한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정약종의 교회 활동과 신앙을

교회사가 차기진 박사가 연구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 천주교 신자로는 최초로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의 순교자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을 2002년 1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하였다. 신앙 선조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삶은 물론 조선 사회와 민중들을 복음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던 그분들의 선각자적인 역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천주교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순교자들의 용덕을 추적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는 점에서 책임감도 느낀다.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명도회(明道會)의 회장이며, 순교자 정철상(가롤로)과 정하상(바오로) 성인, 성녀 정정혜(엘리사벳)의 부친이요, 성녀 유소사(체칠리아)의 남편,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전(丁若銓)의 아우요 정약용(丁若鏞, 요한)의 형, 순교자 황사영(알렉시오)의 숙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순교자 정약종(아우구스티노) 회장에게 붙여져 온 대명사이다. 그러나 그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1. 입교와 교리 연구

1760년 경기도 광주 땅 마재(馬峴, 현 남양주시 와부읍 능내리)에 있던 나주 정씨(일명 押海丁氏) 집안에서 정재원과 해남 윤씨 사이의 아들로 태어난 정약종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착실하게 성현들의 학문과 조선의 습속을 몸에 익혔다. 그리고 성장한 뒤에는 이씨 집안의 딸과 혼인하여 장남 정철상(가물로)을 얻었다. 한편 정약종의 호를 '선암(選菴)'이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암이 과연 그의 호인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한다.

정약종은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차츰 전통 유학이나 성리학만으로는 조선의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양반층만을 중시하는 신분 사회를 타파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그는 일찍부터 유학을 배워 과거의 길로 나아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한때는 도교(道敎)에 심취하여 장생(長生)·구원의 길로 나갈 방도를 찾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문·사상적으로 방황하던 그에게 찬란한 빛을 던져준 것이 바로 천주교 신앙이었다.

27세 때인 1786년 3월 중형인 정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주교 교리에 접하게 된 정약종은 즉시 도교를 버리고 천주교 신앙에 잠심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오랫동안 갈구해 오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이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나 도술, 옥황상제라는 말은 허망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주교요지』 상편 중에서). 그에 앞서 일찍이 복음의 진리에 눈을 떴던 아우 정약용은 1784년 겨울에 이벽(요한)·이승훈(베드로)·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등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를 창설하였다.

정약종은 천지 창조, 삼위 일체, 강생 구속, 천당 지옥 등 4대 교리를 비롯하여 주요 교리를 이해한 뒤,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을 대부로 정하고 이승훈(베드로)으로부터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하였다. 이 무렵에 이미 부친 정재원은 자식들이 천주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약종이 입교한 다음해인 1787년과 1788년에는 아우 정약용이 반촌(泮村, 성균관이 있는 마을)에서 동료들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읽다가 밀고되고, 이로 인해 '반회사건'(泮會事件)이 일어나자 '자식들이 집안을 망치겠다'고 생각하여 천주교 신봉을 더욱 엄금하였다.

그럼에도 정약종의 신앙열은 더욱 불타올랐다. 입교 이후 그는 아내와 아들 정철상에게 신자로서의 모든 본분을 가르치면서 오로지 교리 연구에만 몰두하였고,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입교가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였던 만큼 교리 연구 또한 순수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훗날 조카 황사영(알렉시오)은 이러한 열심에 대해 “조그마한 이치라도 밝히지 못한 것이 있으면 먹고 자는 것에 흥미를 잃고 전심 전력으로 그 이치를 생각하여 반드시 완전히 꿰뚫은 뒤에서야 그쳤으며, 여러 해 동안 깊이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습성이 될 정도였다”(황사영의 <백서> 중에서도)고 기록하였다.

정약종은 이 무렵 첫 번째 부인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당시의 관습대로 가족들은 두 번째 부인을 얻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못 이겨 그는 유소사(체칠리아)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교회사에서는 이러한 정약종의 가정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약종은 집안 식구들의 간청에 못 이겨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한 지 얼마 후에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와는 금욕을 하면서 살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때 교우들이 그를 말려 정하상(바오로)과 정정혜(엘리사벳) 등 여러 자식을 두게 되었다(샤를르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 중에서).

1790년 한국 천주교회는 밀사 윤유일(바오로)을 통해 북경의 구베아(A. de Gouvea, 湯士選) 주교로부터 ‘조상 제사 금지령’을 전달받았다. 그러자 많은 양반 출신의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명령은 마재의 정씨 집안에도 다시 한번 풍파를 몰고 왔다. 특히 다음해인 1791년에는 정약종의 외사촌인 윤지충(바오로)이 인척인 권상연(야고보)과 함께 제사를 폐지한 뒤에 밀고되었으며, 둘이 함께 체포되어 윤리를 무너뜨린 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전주에서 순교하였다. 이 진산사건(珍山事件)이 널리 알려진 후 부친 정재원의 금령은 더욱 엄해지게 되었다. 중형 정약전은 이후 천주교 신앙과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아우인 정약용도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유일한 절대자로 알고 그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는 정약종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2. 교회 활동과 명도회

부친의 금령이 더욱 엄해지면서 집안에서는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정약종은 집안으로부터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었다. 이에 그는 식솔들을 데리고 한강 건너편에 있는 양근의 분원(分院, 현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자유롭게 양근·여주·광주에 거주하던 교우들과 자주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정하상 성인은 1795년에, 정정혜 성녀는 1797년에 바로 이곳 분원에서 탄생하였다.

정약종의 활동 폭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서울의 지도층 신자들과 왕래하면서 1794년 무렵부터는 그들과 함께 '동학 공동체'(同學共同體, 즉 교리 연구 모임)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은 물론 머슴 임대인(토마스), 행랑 아범 김한빈(베드로), 홍주의 천민 출신 최기인, 백정 출신 황일광(알렉시오) 등을 집으로 맞이해 들여 함께 생활하면서 교리를 가르쳤다.

1797~1798년 무렵부터 정약종의 교회 활동은 점차 빛을 발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은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가 비밀리에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거나 중국으로 밀사를 보내 북경의 구베아 주교와 긴밀하게 연락하던 시기였다. 이제 정약종은 홍낙민(루가), 이국승(바오로), 홍익만(안토니오), 최필공(토마스), 윤지현(프란치스코), 강완숙(골롬바), 홍필주(필립보), 홍교만(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등으로부터 교리에 정통한 지도자로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 총회장 최창현(요한)은 "정약종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본가에서는 계속하여 천주교 신앙을 버리고 제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친척 어른들은 장남 정철상을 송곳으로 찌르며 주 신부를 밀고하도록 탄압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열심한 교우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 온 동학 공동체 중에서도 열심한 공동체는 주문모 신부의 방문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주 신부는 이들을 방문하여 '침례' 즉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이로써 그 동학 공동체는 '침례 공동체'(瞻禮共同體, 즉 지금의 공소 모임격)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운동"은 이러한 동학 공동체 내지는 침례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정약종은 당시의 나이(40세)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그 동안의 교회 활동으로 보나,
교리 지식과 신심으로 보나
명도회장으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 무렵 주문모 신부는 열심히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교회 일을 돌보던 정약종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소공동체 모임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조직화·체계화 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체포된 후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조선의 복음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1799년 초에 주문모 신부가 설립한 것이 중국 교회의 평신도 단체를 모방하여 만든 “명도회”(明道會)였고, 이때 주 신부가 초대 명도회장으로 임명한 인물이 바로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이었다.

정약종은 당시의 나이(40세)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그 동안의 교회 활동으로 보나, 교리 지식과 신심으로 보나 명도회장으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후 정약종 회장은 교리 연구 모임을 주도하거나 회원들의 전교 활동을 지도해 나갔으며, 회원들의 목상 성과 등을 신부에게 보고하는 등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 신부의 명으로 북경에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여 전달한 적도 있었다.

명도회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교리 연구와 강습,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특히 서울에는 각처의 중심지에 침례를 볼 수 있는 공동체를 차례로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침례 공동체는 1801년까지 모두 여섯 곳이 되었으므로 ‘육회’(六會)라고 하였다. 실제로 이 육회의 활동은 지금의 구역·반 중심의 소공동체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 명도회는 박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신자들의 신심 함양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직후인 1794~1795년의 총 신자수가 4천 명이던 것이 1800~1801년에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신자들의 자발적인 소공동체 활동과 명도회의 역할에 힘입은 바 컸다.

3. 정약종의 신앙과 「주교요지」

명도회장 정약종의 신앙은, 첫째 교리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지적인 태도,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교우들과의 강론과 교리 전수 활동, 셋째 끊임없는 목상 공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황사영은 숙부인 정약종의 교리 지식에 대해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별별 교리를 물어보아도 주머니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과 같이 술술 풀려 나와 끊이지 않았으며, 되풀이하여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조금도 막히지 않았다”(황사영의 <백서> 중에서)고 한다.

그럼에도 입교 초기에는 그에게도 허점이 있었던 것일까? 훗날 박해자들이 발견한 「정약종 일기」에는 “임금과 부친이 천주교 신봉을 금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원수와 같이 보게 되었다.”는 불효·불충한 말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정약종도 이에 대해 문초를 받게 되자, “제 자신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있으며, 지금은 그 말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주교요지」(主教要旨)에 담긴 그의 신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천주교를 공격해 온 이기경(李基慶)은 후에 「벽위편」을 저술하면서, 「정약종 일기」에 적혀 있었다는 불효·불충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는 “나라에 큰 원수가 있으니 임금이고, 집안에 큰 원수가 있으니 아버지이다.”(國有大仇君也 家有大仇父也)라는 말이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었을까? 당시 관리들이 임금에게 보고한 것은 “아버지가 천주교를 금지하므로 원수처럼 보게 되었다.”(渠父禁渠邪學 故至於仇視)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경의 기록은, 후에 말을 보태서 정약종을 더욱 불효·불충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약종의 아우인 정약용은 천주교 교리에 나오는 삼구설(三仇說 : 육신·세속·마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록을 당시의 박해자들이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교요지」는 정약종이 하층민과 부녀자 교우들을 위해 쉬운 한글 즉 언문체(諺文體)로 저술한 상·하 2권의 교리서인데, 주문모 신부는 그 내용을 읽은 뒤 “꿀과 딸나무보

그 자신이 일찍부터 하층민 신자들과 함께
 동료로 생활하면서 교리를 연구한 것은,
 교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평등사상의 발로요
 조선의 신분제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사상의 표현이었다.

다도 더 요긴하다.”고 극찬하였다. 이후 「주교요지」는 신자들 사이에서 필사되어 비밀리에 전파되면서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박해가 끝난 뒤 교회의 공인을 받아 목판본과 활판본으로 간행되면서 지하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정약종은 그때 이 책을 저술하고 나서 다시 「성교전서」(聖敎全書)라는 책을 저술하고자 하였지만 신유박해 때문에 완성할 수 없었다.

「주교요지」의 상편에는 천주의 존재 증명, 천주의 속성, 세속론·도교·불교·민간 신앙에 대한 비판, 상선 벌악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편에는 성서에 바탕을 둔 계시와 구속에 대한 설명 즉 천지 창조, 강생 구속, 천주교 봉행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주교요지」는 대중 교리서이면서 일종의 신학서였다. 정약종은 이 책을 통해 신앙심이 약한 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확고한 신앙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교론(護敎論)의 차원에서는 조선 사회에 만연되는 있는 천주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불식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그 중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자

세상일은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믿을 길이 없고, 이치로 생각하여야 참으로 미더운 것이다.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이치로 생각하면 믿을 일이 많으니, 유복자(遺腹子)가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여도 제 몸이 태어난 것을 헤아리면 아버지가 있는 줄을 알 것이요, 사람이 조상을 본 일이 없어도 그 자손을 보면 조상이 있는 줄을 믿을 것이요, 시골 백성이 임금을 뵈옵지 못하여도 나라가 있고 정사가 있는 것을 보면 임금이 계신 줄을 믿을 것이니,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이 비록 천주를 뵈옵지 못하고 천당에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세상 임금의 상과 벌을 보면 어찌 천지 임금의 무궁하신 상벌이 없다고 할 것인가?(「주교요지」 상편 중에서)

실제로 「주교요지」 안에는 4대 교리는 물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유일한 창조주요 주재자로 믿으며, 천지의 대군대부(大君大父)요 전능하고 지엄(至嚴)·지공(至公)·지의(至義)한 절대자로 믿는 정약종의 순수한 신앙 교리가 담겨 있다. 그것은 불효·불충이 아닌 효·충(孝忠)를 바탕으로 한 구원 사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일찍부터 하층민 신자들과 함께 동료로 생활하면서 교리를 연구한 것은, 교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평등사상의 발로요 조선의 신분제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사상의 표현이었다. 그의 일생은 이러한 신앙과 영성의 요소들을 자신의 마음과 생활 안에서 용해시켜 나가는 과정과 같았다.

바로 이러한 신앙 생활과 영성을 기반으로 하여 「주교요지」는 탄생할 수 있었다. 이후 그 신앙은 차남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로 이어졌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양업(토마스) 신부의 천주가사(天主歌辭)는 물론 안중근(토마스) 의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정약종의 순교와 빛나는 용덕

이제는 감히 정약종의 순교 신심을 설명할 차례가 되었다.

양근 분원의 집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정약종은 1800년 5월 이후 분원을 떠나 서울로 이주해야만 하였다. 그 해 4월과 5월, 여주와 양근에서 박해가 일어나 모든 상황이 위급해졌기 때문이다. 서울로 이주한 그는 우선 청석동에 있는 문영인(비비안나)의 집을 빌려 살다가 아우인 정약용의 도움으로 남대문 안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러나 정약종의 서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1801년 1월 10일(양력 2월 22일) 신앙을 증오하는 무리들에게 굴복한 조정에서 천주교 배척의 운음을 반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신유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그 직후 조정에 이름이 알려진 신자들이 먼저 체포되었으며, 2월 11일에는 정약종도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이에 앞서 1월 19일에 박해자들은 정약종이 교회 문서와 서한들을 넣어둔 께짝을 압수하였는데, 그 안에 바로 「정약종 일기」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정약종의 책룡(冊籠) 사건'이다.

2월 12일부터 정약종에 대한 신문과 형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약종은 그 엄한 문초 과정 내내 조금도 마음이 약해진 적이 없었다. 그는 이때부터 순교하는 날까지 시

그분이 하루 빨리 복자·성인으로 시복·시성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기도와 현양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 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된 것은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종일관 호교론을 펴면서 굳은 신앙을 드러냈다.

천주교 교리는 대단히 공정하고 지극히 올바르며 아주 진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는 없으며, 비록 형벌 아래 만 번을 죽더라도 조금도 뉘우칠 생각이 없습니다.

천주를 높이 받들고[對越] 밝히 섬기는 일[昭事]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지의 주재자는 형상(形象)이 없으므로 천주 화상을 만드는 것이고, 7일마다 침례를 받으로써 그분께 의탁하는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주는 천지의 대군대부(大君大父)입니다. 천주를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정약종의 공술 중에서).

이처럼 정약종은 「시경」에 나오는 “상제를 밝히 섬김으로써 마침내 많은 복을 얻게 되었다.”(昭事上帝 律悔多福)는 내용과 “하늘에 계신 분을 높이 받들며 바빠 묘당을 돌아다닌다.”(對越在天 駿奔走在廟)는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천주 신앙을 설명하였다. 단지 천주교 교리만을 이야기해서는 전통 유학에 젖어 있는 관리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유학의 가르침을 인용한,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 아울러 천주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사악한 학문이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도 진리임이 분명하다는 호교론이었다.

그 무서운 형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실로 진정한 “순교의 용덕(勇德)”을 드러낸 말이었다. 그러자 그를 신문하던 관리들은 할 수 없이 「정약종의 일기」 안에 있는 문서를 들추어내어 억지로 불효·불충의 말을 짜맞추게 된 것이다. 그런 다음 정약종을 ‘범상부도(犯上不道)의 죄인’(임금을 거역하는 부도를 저지른 죄인)으로 몰았고, “한없이 흉악하여 하루라도 하늘과 땅 사

이에 놓아둘 수 없다.”는 미명 아래 1801년 2월 26일(양력 4월 8일)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당일로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으니, 당시 나이 42세였다. 순교 후 그의 가산과 노비는 몰수되었다.

정약종의 순교 장면은 다시 한번 그의 용덕을 잘 설명해 준다.

정약종은 옥에서 끌려나와 형장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니, 당신들은 서로 웃지 마시오.’ 처형당할 때가 되자 정약종은 관중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 마시오.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들은 겁내지 말고 이후로 반드시 본받아서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칼로 한 번 내려친 후 머리와 목이 반쯤 잘리자 벌떡 일어나 앉아 크게 손을 벌려 성호를 긋고는 다시 편안한 얼굴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토막에 목을 드리웠다가 몸을 돌려 하늘을 보고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한 뒤 칼을 받았습니다(황사영의 <백서> 및 조선 신자들의 <신미년 서한> 중에서).

정약종은 이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칼날을 받았다. 자부적(慈父的)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 주신 대군대부 하느님께 대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대효(大孝)를 실천한 것이다. 이것은 확고한 천주관과 그리스도관, 대신덕으로서의 신·망·애 삼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그의 구원 사상은 순교의 용덕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일치 실현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말해도 될 것 같다. “정약종은 한국 천주교회의 초대 교부요, 대신덕과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하는 순교 신심을 지녔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다”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분이 하루 빨리 복자·성인으로 시복·시성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기도와 현양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 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된 것은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교구장

사목교서

2002

- 각 교구장 주교는 해마다
-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을 앞두고
- 교구장 주교의 고유의 사목권과 교도권의 표현인 사목교서를
- 자신의 교구민, 곧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발표한다.
- 이 사목교서에서는 교구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 한 해 동안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 나라 15개 교구 가운데
- 올해 새롭게 사목교서를 발표하지 않은
- 춘천교구와 안동교구를 제외한
- 13개 교구의 교구장 주교의 사목교서를 요약하였다.



시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해가 되기를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이 세상에 화해와 용서를 통한 평화가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민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노드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교회의 창문을 연 시노드

교회의 사명은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교회현장, 1항)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각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문화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며, 동시에 그 지역 문화 속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도들은 이 회의를 통해 이방인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임으로써 보편교회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바오로 6세, 그리고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정신을 추진하고 완성해 나가기 위해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주교 시노드를 소집하였습니다. 교구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세계 주교 시노드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각 지역교회의 차원에서 오늘의 세상 안에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세계의 많은 지역교회는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며 그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자기 신원을 재발견하고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 교구 시노드

오늘의 우리 교구는 본당 230여 개, 700여 명의 사제, 2500여 명의 수도자 그리고 신자는 130여만 명이나 됩니다. 교구가 커지다 보니 안고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날로 냉담자는 증가하고 많은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의 한 부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당과 교구 공동체가 대형화되어 구성원간의 대화와 협력이 부족하고 교회의 본질인 일치와 친교가 저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힘과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어깨에 달린 임무는 무겁고도 막중합니다.

이제 교회는 과연 구원의 징표와 도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상을 재확인하고, 그 교회상에 서울대교구의 모습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규명하면서 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상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구 시노드입니다.

3.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교구 시노드의 성패는 모든 교구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작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 교구 내 모든 신자들, 신학생들, 수도자들,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교회상을 정립하자는 여러분의 바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 이를 교구민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여 교구 시노드의 의제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의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난 후 2003년도에는 교구 시노드가 본회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교회 쇄신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포도밭에는 평신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목자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연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교구 시노드를 치른 교구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항상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수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시노드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의 해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의 세상은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을 시작으로 생명에 대한 기본적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생명 윤리 면에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고유 영역인 생명의 신비가 인간에 의해 마구 침범되고 생명 조작까지 예사로이 시도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세상은 지난 세기의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문명과 문명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불안과 긴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는 민족의 비운인 분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혼미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생하신 것은 기왕의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즉 복음이란 새로운 가치질서로 지배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당신이 시작하신 구원성업을 세상 마칠 때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목적은,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다른 또 하나는 선포한 복음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의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격변을 거치면서 복음 선포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쏟아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아울러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회가 선포한 복음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

여주고 증거하여 왔는가를 반성해 볼 때 미흡함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과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리름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정적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요즘 선교가 잘 안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른바 냉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여율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피상적으로만 보면 하느님과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내면 세계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느님과 참 메시아를 갈망하고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께 무관심하고 교회를 백안시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복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였지 자기 스스로는 그 복음을 살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깊은 회개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복음적인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 작은 단체부터 배타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친교를 사는 단체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로 바뀌면 본당이 달라질 것이고 교구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새해 교구 사목지표를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의 해”로 정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친교 공동체를 우리 교구의 새해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1.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kerygma).
2. 깨달은 바를 행동과 생활로 옮겨야 합니다(martyria).
3. 공동체를 떠나서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liturgia),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koinonia)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4. 이런 공동체는 자기 구원만을 도모하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고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공동체입니다(diakonia). 어려운 이웃과 친교를 나누고 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는 공동체입니다. 자연과 친교를 나누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공동체입니다. 억울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불의에 용감히 맞서 정의와 평화 증진에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갈라진 이복 동포와 화해하고 그들과 가진 바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새복음화, 재복음화, 사회복음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1테살 4,3)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결국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비신자들과 쉬는 교우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복음화

2000년 말 전국 교세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교구의 신자 수는 35만 3천여 명으로 복음화율은 9.6%로, 전국 평균인 8.8%보다 높았습니다. 신자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인 3.2%보다 높은 3.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상황이 매우 낙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구의 신자 증가율은 1981년(14%)이후 점차 하락하여 1996년 이후로는 줄곧 3%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쉬는 교우 비율은 1993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0년 말 현재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구는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선교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만들었으며, 선교지침서 마련과 다양한 형태의 선교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자들도 새 양과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또한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리교사들을 위한 격려와 지원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비신자들의 회심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민 모두가 1년에 적어도 1명 이상씩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구체적

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복음화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평신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연구하여 신자 재교육이 효과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1차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통하여 수립된 20년 복음화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교구와 본당의 여러 부서와 단체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잘 짜여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된 평신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복음적 가치가 충만히 실현된 곳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위험하게 번져나가는 새로운 과학 사조들과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언제라도 무너뜨릴 듯한 경제상황 안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사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신자로 거듭 태어나도록 신자들의 의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사목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각 지구마다 지구별 청소년, 청년 담당 사제가 선정되었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본당과 지구와 교구 단위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사회복음화

21세기는 사회복음화 관련 사목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교회의 존재 의미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교회가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시대적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발족한 사회사목국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구는 올 한 해를 사회사목 분야별 전담 사제 양성과 인력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시대적 징표를 읽고 그에 응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또한 우리 교구는 사회사목 전담 사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신도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구는 이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즉 교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평화기금'의 확보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복음화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회사목국이 사회복음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교구민 모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구 시노두스 (대의원회의) 폐막에 부쳐

교구 제1차 시노두스 개최 배경과 목적

새로운 복음화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계 교회의 시노두스 개최 행렬에 발맞추어 수원교구도 2000년 대회년을 잘 준비하려는 목적과 21세기, 제삼천년기의 변화하는 세상에 부응하는 교구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차 교구 시노두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임 교구장님이신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께서 1996년도 사목교서를 통하여 수원교구가 시노두스를 개최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제3대 교구장 주교가 1997년 10월 9일 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합동 총회시에 교구 시노두스 개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시노두스 의제로서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방안'의 두 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수원교구가 걸어온 길과 당면 과제

40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가난한 농촌 교구로부터 출발하여 본당을 100개 이상 분할하고 성전을 신축하는 큰 사업을 수행해 냈고, 신도시 확장에 의한 인구 유입과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 신자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독자적인 교구 신학교 설립으로 사제를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복음화 사업에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교구가 이처럼 전형적인 농촌 교구로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외형적으로 전국 교구에서 두 번째 큰 교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구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영세율과 주일미사 참여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냉담자와 거주 미상자는

점차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수원교구 '새복음화'의 열쇠

수원교구민들은 시노두스 의제를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로 선정하기를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교구민이 모두 기도하면서 일치 단결하여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구역·반 공동체 문제와 교회의 미래가 걸린 청소년 문제만 확실히 타개하여 나간다면, 수원교구는 획기적인 발전을 볼 수 있는 기틀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시노두스에서 마련된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21세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실히 찾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다면, 교구 복음화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시노두스 결과문은 21세기를 살아갈 수원교구의 '새로운 복음화' 정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으니, 우리 모두 실현의지를 불태우며 힘을 집중시키고, 조직과 시간과 재정의 지원을 통해서 시노두스 결과문을 구현해 나아갑시다!

시노두스의 성공적인 구현이야말로 수원교구가 다른 많은 일들도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희망찬 교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구민 모두가 장기간에 걸쳐 결의하여 만들었고 교구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펼치는 일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교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교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노두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첫째로, 청소년에 관한 결과문은 거의 '청소년을 위하여'라는 측면만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과 사과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자식에 대한 부모님들의 그릇된 사랑이 자녀의 '과잉보호'를 낳듯이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역·반 공동체와 청소년들에 관한 시노두스 결과문들이 잘 실현되고, 이로써 친교 교회적인 교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반 공동체와 청소년 복음화 담당 신부님들의 모임, 지구 내의 구역 분과장 모임, 그리고 청소년·청년 분과장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교구의 복음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바라보면서 시노두스를 성공적으로 구현시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을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새 시대 복음화의 여정’ 둘째 해 복된 가정의 해

새 천년기를 맞이한 우리는 은총의 대회년을 기점으로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재현할 ‘새 시대 복음화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그 첫 단계로 지난해 ‘선교 영성의 해’를 선포하였고 ‘자기 회심과 쇄신’을 기반으로 복음화의 기초를 다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복음화의 여정 두 번째 단계로 ‘복된 가정의 해’를 맞이합니다. ‘새날 새삶’ 운동에서 제시되었던 두 번째 실천 지표 ‘참된 가정 이루기’를 깊이있게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정의 복음화이며 가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복음화의 출발은 가정이어야 하며 동시에 복음화의 결실도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가정관을 회복해 주며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목자들에게 있어 사목의 최우선적인 영역은 가정이며 가정 사목이야말로 모든 사목의 총체라 할 것입니다.

가정 사목의 기초는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 안에서 활기찬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이 가득찬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기도는 가족 모두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품위와 책임을 갖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조합니다.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모든 교육적 효과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가정 기도와 신앙교육을 통한 자녀 육성은 자녀에게 하느님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길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기 쉬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은 가정의 틀을 벗어나려 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적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서 새로운 시대적 희망의 징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어딘가 자신들을 펼치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으려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이냐에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쉼터가 되며 보금자리가 되도록 개방적 분위기와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복된 가정의 이상은 결혼을 앞둔 젊은 이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잉태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혼인성사의 소중한 의미와 공동체로서의 가정관을 올바르게 심어주어 결혼 초기부터 혼인의 위대한 신비를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본당이나 지구에서도 혼인 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권합니다.

불가피하게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애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혼이나 그 밖에 불행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당사자들이나 그 자녀들이 결코 소외된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넓은 포용력과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 사목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은 노약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노년 층과 그 동안 관심 밖에 놓여진 듯한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할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관념을 뛰어넘을 자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첫 자리이며,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를 모신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며 발전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말로 기초교회이며 이들의 집합으로 지역 소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각 소공동체들의 유기적 연결로 본당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이들 소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일치와 친교를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가정 공동체의 복음화야말로 교회의 당면한 과제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분야별 교구 대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2000년 대회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생활 목표를 정하고, 우리들 각자의 생활은 물론 본당과 교구의 삶을 새롭고 활기차게 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교구 설정 90주년을 맞으며 교구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교구 100주년을 준비하며 각 분야별로 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대회로 소공동체 지도자대회를 열고 교구의 소공동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으며, 소공동체의 봉사자를 모아서 올바른 소공동체를 이루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구 시노드의 결정에 따라 참으로 확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각자가 노력하여야 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구 대회 때마다 제시되는 우리의 살 길을 바르게 알아듣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알아듣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야별로 교구 대회가 열릴 때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대회의 지향대로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5월에 초등학생대회가 열릴 것이며, 이 대회에서는 교회의 장래의 일꾼이 될 우리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참으로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교회의 기초적인 기도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예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는 모든(냉담자의 자녀들까지) 어린이들(그리고 청소년들)이 모두 가톨릭 기초 기도문(십이단)을 익히고 또한 매일 기도를 바쳐서 적어도 이 기초 기도문만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위한 대회를 열 것입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역할을 정리하고 그 활동을 강조할 것이며, 더 많은 사도직 단체가 결성되고 더 많은 신자들이 사도직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자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일을 동료 신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도직 단체들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은 가능한 한 사도직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구 대회를 열심히 따라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가지씩 바뀌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본당과 교구에 새로운 활력이 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로 새로워지는 교구가 앞으로 9년 뒤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100주년을 맞는 우리 교구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성모님과 이윤일 요한 성인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느님께서 우리 교구에 풍성한 강복을 내리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복음화 실천을 통한 공동체 성장의 해

대회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복음화'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음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알찬 복음전파가 어렵다는 소중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주제로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2년도에는 모든 본당 공동체가 더욱 복음적 삶을 실천하여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여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교구 사목지침을 '복음화 실천을 통한 공동체 성장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복음화를 향한 우리의 삶은 몇 가지 법규를 지키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말은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삶과 실천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익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복음적 삶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모든 교구 공동체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삶의 바탕으로서의 주일미사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복음적 삶의 일차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일미사는 그 자체가 복음적 삶의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열며 그분의 진리를 새로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복음화하려는 신앙인의 영성은 매주일 공동체의 전례를 통해 쇄신되고 성장됩니다. 오늘날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내면의 삶을 살찌우는 의미로서의 주일 공동체 미사에 전 신자들은 더욱 충실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목자는 주일 공동체 미사의 중요함을 신자들에게 일깨우며 주일미사가 기계적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성의를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삶의 성장을 위한 신앙교육

신앙인에게서 신앙은 그의 삶과 더불어 부단히 성장되어야 할 의미를 지닙니다. 신앙의 삶은 인간의 어느 한 부분만의 일이 아니라 지적, 인격적,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맹목적 행동주의도, 극단적 신심주의도 경계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위해 올바른 이해를 항상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본당이나 교구가 마련하는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모든 이들은 청소년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제들도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교구는 사제 평생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자들이 더욱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일꾼이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복음적 구역 반공동체 운동

복음 정신에 입각한 사명과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외적인 성장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반공동체 운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반공동체 구성원들이 곧 지역 선교의 일꾼들이 되도록 본당의 반모임을 선교적으로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본당 반공동체 사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본당 관할구역 재조정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모든 사목자와 신자들은 같은 신앙 안의 한 형제 자매임을 의식하고 본당 구역 조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반공동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드러나도록 다양한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본당 예산의 일정 정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독거노인 방문, 소년소녀 가장 돕기, 불우한 청소년 장학금 등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지역의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성부의 뜻에 일치하는 가정

2002년은 교회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미국의 테러 대참사 이후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침체, 그리고 해마다 심화되는 이상기후 등 적지 않은 국외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내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구에도 2008년 교구 설정 50주년을 앞두고 교구의 면모를 쇄신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며 기본이 되는 가정의 복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변치 않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2002년을 '성부의 뜻에 일치하는 가정'의 해로 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요 예언자이며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어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성부의 뜻에 일치하려 늘 애쓰는 것은 곧 신앙인의 뿌리요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세례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직분에 맞게 사제요 예언자이며 왕으로서 그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사제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사제직은 자신과 이웃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며, 그 일의 기본은 기도, 힘쓰고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봉헌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교구에 4만여 교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냉담 중이거나 거주미상 상태에 있습니다.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쉬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

습니다. 그리하여 쉬는 교우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신앙인의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은 '가정이 작은 교회요, 가족 모두가 사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매일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예언자

신자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합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신자가 성서를 가까이하는 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일입니다.

또한 선교는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그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의 기본정의와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의식은 물론이고, 올바른 선거문화와 인간존엄성 회복운동,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는 인간생명권 수호운동, 그리고 날로 파괴되는 자연환경 보호운동 등도 성부의 뜻에 일치하여 그 기본을 바로 세워나갈 내용입니다.

가족 모두가 왕다운 봉사자

신자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왕직은 지배하고 소유함에 있지 않고 봉사하고 내어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며, “스승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며 인내롭게 봉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폭력과 분열을 극복하고 참된 인간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화는 '내어줌'에 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 역시 '내어줌'에 있으니만큼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의 생활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가정은 바로 이 사랑과 봉사를 배우는 첫 학교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사랑으로 일치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봉사정신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기관에의 후원이 기본적인 행복의 길임을 깨닫고 힘쓰며, 세계난민 돕기와 북한에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한 3000운동 등 '내어줌'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와 쇄신의 길도 성부의 뜻에 일치하려는 기본적인 실천과 꾸준한 노력 없이는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본 세포인 각 가정에서부터 성부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정이 사회복음화와 선교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4만여 쉬는 교우들이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교의 해

우리 교구는 2000년 대회년부터 '선교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에게로 눈길을 돌려 선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선교의 해를 지내면서 열심히 복음 선포에 힘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해 두 번째 해인 2001년도의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 비해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교 노력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가정 교육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과 건전한 가정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가정이 '자녀들의 인간 교육, 사회 교육, 신앙 교육의 첫째 학교'임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분위기가 감도는 성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주일학교 운영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본당의 시설과 교리교사가 모자라고, 밖으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은 과외수업과 입시 경쟁의 심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손을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유치원과 유아원, 그리고 어린이 집 등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종교적 심성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이며 선교의 주역인 청소년

‘청소년 선교의 해’인 올해에 우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청소년 신자들 자신이 선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선교는 성인들의 독점물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이며 청소년과 학생들이 그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물론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원 복음화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 육성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의 성소자 수가 줄어들어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돕는 일꾼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열심한 신앙의 가정 분위기는 성소의 못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소의 길을 건도록 권유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청소년을 상대로 활발한 복음 선포를 펼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회 안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뿐 아니라, 청소년 선도를 위한 복지사업과 문화활동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인류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건전한 주인공들을 키우는 것은 오늘의 기성 세대들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청소년 선교의 해’를 지내는 우리는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활발히 청소년 사목을 펼치고, 앞으로 청소년 사목을 위한 좋은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새로운 복음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로 복음선포에 대한 '새로운 열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전 인류를 향한 것이다. 그 목적은 더욱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형성에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4항)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며 선포된 교서 「제삼천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시노드들은 모두 새로운 복음화의 부분들이며,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회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내적 쇄신과 충실을 계속 도모하면서, 신앙의 심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열의

우리 교구는 2007년에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나이로 비유하자면 고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지역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좌절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노력하였고,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선과 보편적 일치룰 이루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각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많다는 사

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구 설정 70주년을 앞두고 교구 공동체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새로 나고자 하는 새로운 열의를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과 가정 성화,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에 관한 새로운 인식

우리는 교구 공동체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선 급변하는 현대세계에 적응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사명을 새롭게 각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관해 새롭게 인식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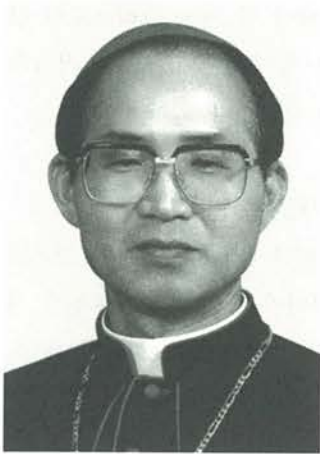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신비체’로 규정한 공의회의 선언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성화(聖化)의 부름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요한 3, 5-6), 생명의 빛이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구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 교구 공동체가 2년째 시행하고 있는 ‘지구장 제도’(지역 협동사목)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지구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협동사목은 교구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육신 안에서의 영혼의 역할을 세속 안에서 완수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본연의 사명인 하느님을 섬김과 선교의 임무를 더욱 온전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똑바로’운동을 열성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운동은 ‘의식 계몽 운동’ 이자 ‘생활 실천 운동’이기 때문에 신앙인 개인과 지역 사회의 성숙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참 행복 선언’(마태 5, 3-12)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생활로 탁월하게 증명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기를 희망합니다.



어두움에 빛을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을 기념하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은총의 한 해를 지냈고, 우리 교구에서는 이 때를 기해서 '대회년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삼위일체 신비를 강조하신 이 해에,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합시다."라는 구호 아래, 우리는 이 교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야 할 분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라는 주제로 특별히 '성서 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본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요안·루갈다제'를 정례화함으로써, 이분들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주변사회에도 전파되어, 인간관계 전반, 특히 이기적 성향으로 파괴되어 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에 큰 빛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성서 사도직의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복음의 정신이 우리 주변 사회와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스며들고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교'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구는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라는 점 이외에도, 특히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 세운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결실들은 신앙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순교의 피와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정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에서 드러나는 우리 교구의 선교 상황 및 사목 현실은 자랑스런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 한국교회 총 신자수는 407만 명으로, 인구 대비 신자의 비율은 8.8%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는 신자수가 154,132명으로 인구의 7.68%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 증가율, 새 영세자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주일미사 참여율, 판공성사 참여율 등 모든 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선교에서 머물지 않고, 신앙 공동체의 활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그에 따른 기쁨을 체험하는 계기로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비신자 권면, 교리 교육, 영세 후 신앙공동체로의 통합 등 전 과정을 본당 내 소공동체별로 담당하면, 새 신자가 소외되지 않고, 하느님 가정의 일원이 된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구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교구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겠습니다. 교구청사의 신축, 방송국 설립, 성소 개발과 육성, 청소년 교육을 위한 시설 등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계획들이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의 기도와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두고 각 사목자와 본당 공동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에서 참다운 기쁨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일이 앞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요한 복음 4장(1-42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뜻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위기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언제나 기회로 바뀝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깊은 반성을 통한 새로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간다면 우리는 자랑스런 전통을 다시 한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여 당신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전파의 대열에 뛰어 듭시다.



신앙 쇄신으로 교구의 모습을 새롭게

지금 우리 교구의 모습은

우리는 먼저 우리 교구의 진상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 교구의 신자 총수가 52,468명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거주불명자가 8,999명 이요 냉담자는 9,492명이나 되고, 3년 동안에 한 번 판공성사를 받은 신자의 수는 32,761명, 그 중에서 주일미사 참례자 수는 14,76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거주불명자는 신자 총수의 17.2%요 냉담자는 35%가 되고, 주일미사 참례자 수는 거주불명자를 제외한다 하여도 현재 파악되고 있는 신자수의 34%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일학교 대상자 9,234명 중 주일미사 참례자 수는 3,389명으로 이는 총수 비례 36.7%이지만 실제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자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에 관해서는 성사혼이 39%인 데 비하여 관면혼은 61%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 교구의 지리적, 정신 문화적 특성 등을 보아 한국교회의 하나의 모범적 교구가 될 사명이 있다는 집념 내지 확신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나는 사제 평의회 결정에 따라 2002년 사목교서의 주제를 '본당의 신앙 쇄신을 통해서 기본을 갖춘 교구가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대하는 교구의 새로운 모습

우리 지상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세 가지인데, 마귀와 세속, 육신 곧 삼구입니다.

이 삼구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는 힘의 원천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얻는 방법은 주로 기도와 성사임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구의 올바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무장을 하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간곡한 당부를 따라 기도와 성사를 가까이해야 하겠습니다. 신심은 기도와 성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어떤 신심이라 하더라도 기도와 성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구의 신자들이 신심을 통해 얻게 되는 은총의 힘으로 삼구를 물리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쇠신해 나간다면 우리 교구는 확실히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는 미구에 50%를 기록할 것이고, 학생들은 기도와 교리공부, 전례와 성경에 맞들이게 되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성 세대의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또한 냉담자들은 쉽게 회두하고 관면 혼인은 매우 드문 예외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식사를 하든지 식사 전·후 기도를 바치는 것과 누구나 주요 기도문이나 고해성사 때 바치는 기도문들을 외우는 것쯤은 특별한 일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레지오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신심운동들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결실을 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 안에서는 정숙하고 경건한 처신을 하게 될 것이며, 앉은 자세로뿐 아니라 무릎 꿇고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에서 가정기도 소리가 울려나오는 가운데 가정 불화는 줄어들 것이며, 웃음과 평온이 감도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구는 굳이 모범이니 표본이니 하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연히 그러한 모습의 교구가 될 것입니다.

‘똑바로 운동’에 큰 기대를

나는 평신도들이 도덕성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에 벌이게 될 ‘똑바로 운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하느님의 축복 속에 잘 전개되어 개인과 가정과 대소 공동체를 똑바른 자세로 똑바로 걷게 함으로써 우리 교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교구의 주보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과 결심을 어여뻐 여기시어 우리의 본당 쇠신 운동이 가시적인 좋은 결과를 보게 하여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한 해를 보내고 나서 교구민 모두가 입을 모아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들을 위한 사목에 심혈을

계속되어야 할 선교와 쇄신

지난해 우리 모두는 '선교와 쇄신'이라는 사목 목표 아래 온 교구민이 합심하여 내적으로는 묵주기도를 바치고, 외적으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4,20)라는 사도들을 본받아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본당들이 신앙쇄신을 위한 시도들을 하여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세례자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와 쇄신은 다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해의 교구의 사목 방향을 논의할 때 사제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선교와 쇄신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병사들을 향한 사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교구 사목 목표는 "병사들을 위한 사목에 심혈을 기울이는 해"이고, 사목 표어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시편 34,11)입니다.

차세대 사목인 군사목

청년들은 이 나라와 교회의 꿈이며 미래입니다. 젊은 병사들이 교구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중교구는 우리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교구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 신자들을 양성하여 사회와 교회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사목, 미래의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교구, 젊은 본당에서 젊은 병사들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볼 때 군 성당에서 병사들은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자리가 마련되고 역할이 주어지고 모임이 마련되면 신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젊은이이고, 특히 군에 몸담고 있는 병사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입시나 학업 등으로 교회와 멀리했던 젊은이들인 병사들에게 군대는 새롭고 교회를 찾고 신앙을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 병사들에게는 군대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사회에서 선교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젊은이들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며 그 돌파구로 각 종교에서는 군대라는 풍부한 선교의 어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병사 여러분!

군종교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뒷자리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군대생활에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성당은 여러분의 안식처이며, 여러분 삶의 길잡이로서 빛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이 사회를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고, 병영생활을 통해 함께 살아나가는 소중함과 너그러움을 배우며, 친절하고 인내하는 생활을 실천할 뿐 아니라 이웃 동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열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우 여러분, 금년도는 우리의 소중한 병사들을 위하여 우리의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심혈을 기울여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합시다.

성당을 찾아오는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이 미사 전례와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도와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병사들의 선교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한국 평협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회장	여 규 태 (요셉)	H)02-763-5535 O)02-376-1501 F)02-305-5212	(우)110-52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아남아파트 301-812 011-480-0601
부회장	김 기 수 (안드레아)	H)02-813-2772 O)02-581-9400 F)02-581-9611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대호빌딩 301호
부회장 겸 사회교리실천 본부장	마 정 웅 (알폰소)	H)053-214-0088 O)011-9595-7707	(우)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우방 1차 A. 5-501
부회장	김 기 주 (스테파노)	H)062-681-6667 O)062-360-5867	(우)502-15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30 금호타운 101-1502 011-645-6679
부회장	권 돈 구 (바오로)	H)032-522-4512 O)032-472-1401	(우)403-76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아파트 38-803 017-324-4512
부회장	황 재 웅 (마태오)	H)031-253-3477 O)031-441-1421	(우)411-09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15-30
부회장	류 길 성 (스테파노)	H)02-568-5983 O)011-330-5983	(우)135-98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34-502
부회장 겸 복음화 특별위원장	김 영 대 (루도비코)	H)062-227-7128 O)016-608-6004	(우)501-080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00 금호타운 112-1902
부회장	최 창 주 (베네딕도)	H)02-574-7004 O)02-872-6691	(우)135-807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현대1차아파트 104-1003
감사	경 한 석 (아우구스티노)	H)043-223-1453 O)043-253-8165	(우)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7-17
감사	오 영 창 (토마스)	H)054-553-2637 O)016-877-2637	(우)745-050 경북 문경시 모전동 264-1 현대아파트 103-405
사무총장	최 흥 준 (파비아노)	H)02-652-5732 O)02-777-2013	(우)158-053 서울시 양천구 목3동 318-282 104호 019-330-8053

교구 평협 회장

교 구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여 규 태 (요셉)	H)02-763-5535 O)02-376-1501 011-480-060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아남아파트 301-612
대구	마 정 웅 (알폰소)	H)053-214-0088 011-9595-7707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우방1차 A. 5-501
광주	김 기 주 (스테파노)	H)062-681-6667 O)062-360-5867 011-645-6679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30 금호타운 101-1502
춘천	송 성 복 (마티아)	H)033-252-5133 011-373-513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42
전주	위 상 양 (프란치스코)	H)063-275-0034 O)063-640-3114 011-9627-0034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278 임실군보건의료원
부산	이 중 길 (에밀리오)	H)051-415-6510 O)051-811-1208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112 미광A. 103-1203
대전	오 회 철 (파비아노)	H)042-472-6952 O)042-828-698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 삼부A. 106-2003
청주	경 한 석 (아우구스티노)	H)043-223-1453 O)043-223-8482 016-432-848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7-17
인천	권 돈 구 (바오로)	H)032-522-4512 O)032-422-2363 017-324-45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동아A. 38-803
수원	황 재 웅 (마태오)	H)031-253-3477 O)031-441-142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15-30
원주	김 정 하 (요한)	H)033-764-5342 011-377-5342	강원도 원주시 원동 226-9
마산	김 철 (베네딕도)	H)055-246-8433 011-881-8433	경남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107-23
안동	박 영 조 (페렐리오)	H)054-852-8636 011-543-8638	경북 안동시 안기동 170-5
제주	김 향 원 (아타나시오)	H)064-742-9087 O)064-754-3242 016-690-9087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0-37
군중	강 신 욱 (안토니오)	H)02-518-3813 O)02-796-2199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합참전략기획 참모본부장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족화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원 (프란치스코)	H)033-252-4283 O)033-254-4283	(우)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64-2 011-9918-4283
기획분과 위원장	김용수 (바오로)	H)02-2648-4354 O)018-211-4354	(우)158-752 서울시 양천구 목동 2단지 아파트 203-202
교육분과 위원장	정동규 (가브리엘)	H)02-797-8663 O)02-714-0600	(우)140-03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강맨션 18-202 011-470-6989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이정희 (베드로)	H)02-815-6857 O)02-961-4862 F)02-967-4029	(우)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60번지 10호
홍보분과 위원장	김영걸 (안드레아)	H)02-2299-2296 O)011-279-2196	(우)133-094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1020-1
문화분과 위원장	이원복 (치릴로)	H)02-923-1097 O)02-398-5131	(우)136-044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4가 256번지 011-896-1097
청소년분과 위원장	조한수 (마리노)	H)02-821-8165 O)02-727-2094	(우)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내 교육국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이홍균 (요셉)	H)02-470-3290 O)02-307-8171 F)02-304-8404	(우)134-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2-3 신호빌라트 1102호 011-317-8171
정의평화분과 위원장	윤학 (미카엘)	H)02-596-1687 O)02-536-8641 F)02-534-2708	(우)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91 효성빌라 1-102 011-736-8641
도농협력분과 위원장	류정목 (사도 요한)	H)02-364-5862 O)016-364-5862	(우)120-01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50-33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에게 베푸신 특은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평신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부어주시어

스스로 교회의 터전을 닦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 발전에 앞장서
자랑스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를 내시고

이 겨레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그 거룩하고 빛나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대 평신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늘 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도덕성 회복

즉바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즉바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즉바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즉바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즉바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즉바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